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악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힌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4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4월 1일)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코로나 구호 3배 증가 불자 자비실현 빛났다

아름다운동행 '2020연차보고서' 살펴보니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한해, 갖은 어려움에도 불자들의 자비행이 더욱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인 기부가 힘들어진 상황에서도 방역물품 등 현물기부와 구호기금 전달은 코로나 전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했다.

아름다운동행(상임이사 일화)은 4월 26일 동행 홈페이지를 통해 '2020연차보고서'를 공시했다. 아름다운동행의 2019년 대비 사업을 보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물품 전달 및 구호활동이 눈부셨다. 2020년 3월 12일 대구와 경북지역에 생수 20만 병과 성금 2억 6000만 원을 전달했고, 3월 19일에는 동국대 의료원에 1억 원을 전달했다. 또 마스크 20만 장을 위기에 처한 곳에 긴급 지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7월 30일과 31일에는 코로나19 장기

전체모연 130% 증가 쾌거
구호 부문 12억여 원 확대
2019년 비교해 190% 늘어

미얀마 돕기 등 새로 시작
일반기부 감소는 '옥의 티'
"정기 후원 증대도 힘써야"

화로 고통 받는 호남지역에 7000만 원을 지원했고 불자가장 및 종립학교 중고등학생 260명에게 총 78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코로나 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 상황에서도 불자들의 자비행은 빛났다. 폭우 피해 속에 이어진 불자들의 성원으로 아름다운동행은 구례 화엄사에 조계종 실무팀과 함께 거점을 만들고 찾아가는 짜장공양 푸드트럭을 이용해 3000인 분의 짜장도시락과 4000만 원 상당의 식료품 구호키트 2000세트를 구례군 등에 전달했다. 이후에는 수해복구가 필요한 곳 41개소에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연차보고서 운영성과를 보면 특히 구호와 방역물품 등 현물기부가 눈길을 끈다. 기금 모연을 의미하는 사업수익은 2018년 총 47억 4108만 원에서 2019년 총 54억 2402만 원으로 14.4% 증가한 데 이어 2020년 총 125억 804만 원으로 전년대비 130.6%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계종이 진행하는 백만 원력 결집불사인 지정기탁 부분에 94억 원이 답지한 것이 컸다. 더불어 2019년 4억 3833만 원이었던 구호기금이 12억 7146만 원으로 전년대비 190% 증가했고, 현물기부 또한 2019년 4억 4123만 원에서 9억 9221만 원으로 전년대비 124.8%로 증가한 것도 주요원인으로 파악됐다.

아름다운동행 측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불자들이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십시일반 원력을 모아 준 결과"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불자들의 성원 하에 아름다운동행은 다양한 구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돕기 위한 미얀마 현지와 국내 미얀마인 돕기에도 나서고 있다. 소외계층 연탄후원인 아이연탄맨, 초등학교 입학생 책가방보내기, 아동·청소년꿈 지원 위시박스 후원, 개안수술 후원 등 국내 지원과 탄자니아 아동영양지원, 보리가람농업기술대 발전기금 등 해외후원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지정기탁과 구호, 캠페인 모금 등이 늘고 있는 성과에도 아름다운동행 활동 자체를 후원하는 일반기부가 소폭 감소한 부분은 '옥의 티'다. 2018년 일반기부는 7억 1391만 원에서, 2019년 7억 7939만 원에 이어 2020년 6억 2281만 원으로 감소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재난상황에서의 기부 확장기에 장기적인 계획 하에 고정후원 증대도 함께 이뤄야 한다. 아름다운동행이 불교계 대표 기부처로서 알려질수록 일시적 기부 외에 정기후원 같은 일반기부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연차보고서에서 "코로나19 기간은 화엄경 인드라망처럼 온 인류가 하나로 연결돼 있고, 하나의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불교는 이미 답을 갖고 실천하고 있다. 남을 이롭게 하며 자신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의 삶이 진실로 필요한 때"라며 불자들의 자비실천이 불법홍포 뿐만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행복을 이끌 원동력임을 강조했다.



아기부처님 오시다 조계사는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5월 5일, 대웅전 특설무대에서 관불의식 입재식을 봉행하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투심을 찬탄했다. 입재식은 주지 지현 스님이 대웅전 상단에 모셔진 아기부처님을 관불대로 이운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아기부처님께 배례를 올린 뒤 욕불게, 정근이 이어진 후 관불의식이 진행됐다. 관불의식은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실 때 아홉 마리의 용이 향기로운 물로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켰던 일에서 유래한다. 조계사는 매년 부처님 탄생을 찬탄하고 각자의 마음 속 탐욕과 번뇌를 씻어내고자 관불의식을 마련하고 있다. 대중은 부처님오신날인 5월 19일까지 동참할 수 있다. 사진은 주지 지현 스님이 관불하는 모습.
글·사진=박재완 기자

부처님오신날 특별방역 지침 시달

조계종, 3일 전국사찰에 하달
법회시 2m 개인간격 유지해야

조계종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전국사찰에 하달했다.

조계종은 5월 3일 '부처님오신날 특별방역 지침'을 발표하고 개인간 거리두기 및 전각별 실내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재차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봉축, 초하루, 일요법회 등 대면 행사 시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개인간격을 유지하고, 지자체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각 전각별 실내 참석 수용 인원을 제한한다. 또 법회 등에 야외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야외는 개인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한다. 각 전각별 내부 바닥에는 이용자간 사회적거리두기 간격을 표시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했다.

사찰 대중공양도 올 부처님오신날엔 없을 전망이다. 사찰 상주대중 공양을 제외한 신도 및 외부인의 대중공양은 일체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사찰 내 상주 대중들은 일상 중에도 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는 기도, 예불 집전 및 동참 시에도 적용된다.

조계종은 또 사찰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및 발열 체크를 실시토록 했으며,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날을 대비해 지자체에 문의해 전화 기반 출입명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이와 함께 사찰 상주대중의 유증상 발생시 즉시 조치, 사찰 상주대중 공양시 지그재그로 자리를 배치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음수대 운영 중단도 권고했다.

이밖에 장례의식(49재, 제사 등)은 실내 참석 인원을 개인간격을 유지하고,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지자체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각 전각별 실내 참석 수용 인원을 제한토록 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진제 종정예하, 자비나눔 기금 1천만 원 쾌척

동행에 전달… 2011년부터 매년 자비나눔행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비나눔기금을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에 따르면 진제 법원 대종사〈사진〉은 최근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진제 스님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부처님오신날과 연말연시에 사회의 어둡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자비나눔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아름다운동챙 측은 "종정예하는 평소 법문을 통해 나를 찾는 참선 수행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체대비의 신행을 강조하셨다. 뿐만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제자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며 "아름다운동행은 종정예하의 뜻을 받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종단의 가장 큰 어른스님께서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어려운 곳에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며 "불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항상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스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송지희 기자

승가공동체 회복 위한 '비구니 수행결사'

전국비구니회, 4월 30일 발족식

수행결사문 · 청규 공개
"청정승풍 마중물되겠다"
선학원특위 공식출범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비구니승가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수행결사가 시작됐다. 탈종교시대, 4차산업혁명에 직면해 불교의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불법문중의 진면목을 확인하고 부처님 정법을 이어나가기 위해, 현대사회에 맞는 수행청규를 제정하고 함께 수행하며 수행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4월 30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비구니승가공동체 수행결사 발족식을 봉행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이날 선원장 성본 스님의 대표낭독으로 '비구니승가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수행결사문'과 '비구니 수행결사 청규'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행결사는 모든 비구니스님들이 저마다 자리한 곳에서 수행자의 근본정신을 회복하고 시대와 함께하는 승가공동체로서 결속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회주는 전국비구니회장 당연직 소임으로 본각 스님이 맡았으며, 결사대중은 증명대중과 발기대중, 근본대중, 참여대중으로 구분된다. 현재 증명대중은 원로의원 25명, 결사를 제안하고 결사의 운용을 주도한 발기대중은 50명, 근본대중은 제12대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과 집행부 대중 90명으로 구성됐다. 참여대중은 전국비구니회 회원으로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비구니스님이다.

전국비구니회는 수행결사문에서 "급격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지금 승가는 계율이 무너지고 개인주의가 만연해져 이기적인 삶에 안주하는 등 세속화의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불교의 존립은 물론 승가라는 이름조차 잊혀질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부처님께서 깨달음 이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법을 전하고 승가를 이루신 일이며 불교의 역사가 면면히 이어져 온 것도 승가공동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한 사람의 뛰어난 비구니를 기대하기 보다는 비구니 승가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을 향한 출가 본명의 자세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국비구니회는 4월 30일 전국비구니회관서 비구니승가공동체 수행결사 발족식을 봉행했다.

수행결사 실천사항은 세가지로 규정됐다. △비구니승가대중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삼장과 선어록을 독송하고 수행정진한다 △시대에 맞는 청규로서 수행공동체의 순수성을 보호한다 △수행결사의 생활 청규를 만들어 각자의 처소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이다. 출가자들이 각자 처소에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도 늘 비구니승가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수행가풍을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비구니수행결사 청규는 결사대중이 수행자로서 위의를 갖추고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바람직한 출가자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다. 총칙과 구성 및 직제, 운영과 의무, 수행규범, 생활규범 등 5장으로 구성됐으며, 비구니승가가 지켜야 할 생활윤리와 대비원력을 실천하는 보살행으로 현대사회에서 종교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다함으로서 비구니 출가정신을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번 수행결사는 본각 스님이 이미 20년 전부터 구상해 온 사안이다. 본각 스님은 "이미 수행에 매진하는 비구니스님들이 많은데 수행결사를 이어가는 것이 낯설 수 있지만, 이번 결사는 어른 스님들의 원력이 서린 전국비구니회관을 수행거점으로 삼아 비구니스님들이 어떤 소임을 맡고 있든 어떤 포교를 하든, 올곧이 수행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사"라며 "사찰을 운영하고 포교에 매진하다보면 스님들이 오롯하게 선방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다. 출가의 근본이 수행이기에 그 수행의 끈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발족식에 이어 첫 수행정진에 들어간 결사대중들은 앞으로 매월 2회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정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국비구니회는 선학원대책특별위원회(이하 선학원특위)를 공식출범하고 선학원 도제 등 비구니 스님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개진할 것을 결의했다. 위원장에는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이, 부위원장은 현정 스님(수석부회장)과 혜욱 스님(운영위원회 수석부의장), 간사에는 심원 스님(감사)이 선임됐다. 전국비구니회 구성원의 20%가 넘은 1300여 비구니스님들이 선학원에 소속돼 있는 만큼, 선학원 문제는 전국비구니회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임을 재확인하고, 비구니스님들의 권익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아 선학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다.

위원장 본각 스님은 "지난 2년간 전국비구니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고민하고 내외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가장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 선학원이었다"며 "이제부터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인 비구니 스님들의 고충을 들여다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현정 · 라마 씨 환경연대 홍보대사로

5월 4 · 6일 위촉장 수여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홍보대사로 임현정 피아니스트와 요술당나귀 리더 라마 씨가 위촉됐다.

불교환경연대는 5월 4일 요술당나귀 리더 라마씨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한 데 이어, 5월 6일 임현정 피아니스트에게도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현정 피아니스트와 가수 라마 씨는 향후 예술을 통해 부처님의 생명살림 가르침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두 사람은 예술 외에도 환경과 인권 등 대사회적 활동에도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가수 라마가 속해있는 요술당나귀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어쿠스틱 밴드로, 그린아티스트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2018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신곡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발매하는 등 환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모으는 일에 적극적으로 매진해 왔다.

피아니스트 임현정 씨는 최연소 베토벤 소나타 전곡 음원을 발매, 2012년에 한국인 연주자 중 최초로 빌보드 클래식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동시에 스위스 인종차별 금지운동주간의 대모로 임명된 데 이어 유럽주간의 대모로도 임명되는 등 인권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이 같은 사회적 활동으로 2018년에는 스위스 뉴샤텔 국제문화상을 수상했다. 송지희 기자

국회정각회 · 경찰청, 점등식 봉행

4월 29일 국회 잔디광장서
원행스님 등 종단대표 참석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국회 정각회와 경찰청 불자회 등 직능단체의 봉축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정각회는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마당에서 '불기 2565년 국회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등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지도자 스님들과 박병석 국회의장, 이원욱 정각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부처님오신날 연등에 담긴 발원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불교를 다짐했다. 스님은 "인류의 성인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코로나로 힘든 사회에 국민과 불자들에게 지남이 되어 꺼지지 않는 등불로 든든한 의지처가 됐다"며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시고자 치열한 수행과 지극한 깨달음을 통해 중생을 제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켠 연등은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 사태의 종식까지 계속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4월 29일 진행된 국회 정각회 점등식.

박병석 국회의장은 "사회가 분열되고 격차가 확대되는 때일수록 대립과 갈등을 대화와 소통으로 통합하는 불교의 화쟁사상(和諍思想)이 필요하다"며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도 무한한 자비를 베풀고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여긴다는 무연대자 동체대비(無緣大慈 同體大悲)의 가르침이 절실하다. 국민통합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국회도 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5월 6일에는 서울 경찰청불자회가 경찰청 1층 로비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점등식은 개회사와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점등, 김창룡 경찰청장 인사말, 원행 스님의 기념사, 발원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원행 스님은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연등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소중한 요즘, 경찰 여러분들의 힘으로 나라가 더욱 발전되고 안정되어 갈등과 불신, 폭력과 무질서가 없는 건전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송지희 기자

"불교문화재 보존 관리에 노력해달라"

원행 스님, 문화재위원에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새로 위촉된 문화재위원 스님들에게 불교문화재 보존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신임 문화재위원 스님 9명은 5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신임 문화재위원은 지난 4월 30일 위촉됐으며, 스님 문화재위원으로는 건축문화재 분과에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 스님, 동산문화재 분과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사적 분과에 조계종 종회의원 각림 스님, 천연기념물 분과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우봉 스님, 매장문화재 분과에는 조계종 문화특보 혜일 스님, 근대문화재 분과에 중앙종회의원 경암 스님, 민속문화재 분과에는 중앙종회의원 철우 스님, 세계유산 분과에는 운문사 주지 운산 스님, 궁능 분과에 중앙종회의원 혜도 스님(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이 위촉됐다. 신성민 기자


신임 문화재위원들이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있다.

승려복지 위한 후원금 전달 이어져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승려복지를 위한 승보공양 후원이 잇따르고 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금곡)는 5월 4일 재단법인 보덕학회와 행심회, 개인 등 최근 이어진 승보공양 후원금 전달 상황을 공개했다.

특히 이 중 원소 스님(재적본사 해인사)은 승려복지제도 중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았던 수혜자로, 승려복지회를 방문해 100만 원을 승보공양 후원금으로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재단법인 보덕학회(이사장 유홍우)도 5월 3일 1000만 원을 승보공양으로 후원했다. 승려복지회 측은 "보덕학회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스님들이 노후와 병고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시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부산 여여선원 불교대학 5기생 모임인 행심회도 최근 승보공양 후원금으로 200만원을 전달했다. 송지희 기자

아홉스님처럼…대중 속 상월결사 활발

상월선원 템플스테이 입재 · 아홉스님 다큐 선뵈

봉은사 상월템플스테이 시작
금토일 3일간 1일1식 좌선도
19일부터는 극장서 다큐상영
천막결사 일화 ASMR로 담아

노덕현 · 송지희 기자

2019년 11월 엄동설한을 딛고 불교중흥을 위한 수행결사로 진행된 아홉 스님들의 상월선원 천막결사. 500여 일이 지난 2021년 5월, 아홉 스님들의 결사정진을 되새기는 문화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먼저 상월결사 중심도량인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4월 30일 '봉은사 상월선원 템플스테이' 를 시작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간 상시운영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아홉 스님을 본떠 1기로 9명의 재가불자들이 참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고아라 봉은사 청년회장, 김정숙 · 김하옥 상월선원 다도팀원, 청현지 수미산원정대 대원, 안현민 대불련 회장, 정상훈 상월선원 유튜브팀원, 최은주 봉은사신도회 사무총장, 김형종 씨 등이 입재했다. 이들은 묵언, 1일 1식 등 현대인들을 위해 정해진 청규 7가지를 서약하고 정진에 들었다.

1기로 참여한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아홉 스님이 정진한 마음을 이어 신심을 다시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참석 소감을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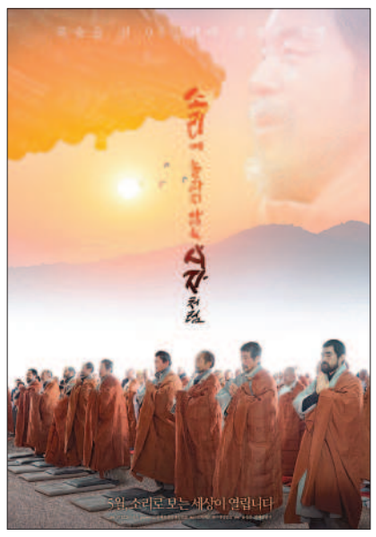
안현민 대불련 회장도 "천막결사를 보면서 청년불자로 꼭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제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던 찰나에 기다리던 일"고 소감을 밝혔다.

봉은사 상월선원 템플스테이는 현재 2기까지 회향한 상태이며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2박 3일간 진행된다. 새벽 4시 기상해, 새벽예불, 108배, 소나무숲길 포행 및 좌선 정진 등으로 진행된다. 상월선원 천막결사와 같이 모든 일정은 묵언 속에서 하루 한끼 공양으로 이어진다. 참가자 외에도 지도법사로 천막결사 아홉스님 중 한 명인 인산 스님이 좌선 등을 지도하며 함께 텐트동에서 정진한다. (02)3218-4826

이와 함께 상월선원 천막결사 아홉 스님의 90일간의 여정을 담은 다큐영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이 5월 13일 시사회를 시작으로 5월 19일부터 극장가에서 대중들을 찾아간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정진한 아홉 스님들의 소리로 담아낸 영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은 수행 과정을 애니메이션 기법을 통해 감각적으로 연출, 편안한 목소리로 신뢰감을 주는 이금희 아나운서의 내레이션으로 구성했다. 이번 작품은 윤성준 감독이 제작했으며, 상영시간은 64분이다.


상월결사 중심도량인 서울 봉은사는 4월 30일 '봉은사 상월선원 템플스테이' 를 시작했다.



영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

상월선원 측은 "2019년 11월 11일을 시작으로, 90일간 하루 14시간 정진을 이어간 아홉 스님들의 특별한 여정이 생생하게 기록된 다큐"라며 "인간의 한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스님들의 수행과 성찰을 통한 위로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초격)는 5월 11일 상월 만행결사의 일환으로 '천년 숲을 걷다' 봉선사 자비순례를 진행했다. 이번 순례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국난극복을 발원하는 상월결사 자비순례 일환으로, 교구본사 차원 참여로는 선운사, 해인사에 이은 세 번째다. 봉선사 순례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그동안 '비밀의 숲' 으로 불려온 광릉숲 내에서 순례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주지 초격 스님은 "천혜의 보고인 국립수목원 광릉숲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작은 풀 한 포기조차 해칠 수 없는, 어느 누구의 발길도 깊숙이 닿지 않았던 곳"이라며 "이번 순례를 위해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약을 진행한 결과 순례대중들이 국난극복을 발원하며 천년의 숲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적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차에 상월선원 순례에 담긴 의미를 확산시키는 의미에서 순례를 추진하게 됐다"며 "녹음이 푸른 계절, 온전히 자연만으로 가득한 천년의 숲에서 이어지는 이번 순례를 통해 참여대중들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계기로서 부처님 오신 뜻을 새기자. 참여하지 못한 불자와 국민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 만으로도 마음 속 짐을 덜어낼 수 있다. 국민들이 국난 극복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차주 상보〉

수진사 방화범 장모씨 '불상훼손죄' 형량추가

최종적으로 2년 8개월 선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찰에 불을 질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일명 '수진사 방화범' 장모씨가 일반건조물방화죄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불상훼손에 따른 재물손괴죄도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장모씨가 지난해 9월경 수진사 경내 와불상에 돌을 던져 불상 8개를 파괴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근 불상을 부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장모씨는 지난해 9월 경 수진사 경내 와불상에 돌을 던져 불상 8개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범행 이유는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한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만 종교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라면 타인의 재산이나 법익을 가볍게 여기는 점에 비춰 책임이 가중돼야 할 뿐 아니라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관련 사건의 경과 등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방화로 인한 2년 6개월형에 '재물손괴죄' 로 인한 2개월형이 추가되면서, 장모씨는 1심 최종 2년 8개월 실형을 살게 됐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서 '세계불교' 만난다

조계사 · 조계사청년회, '세계일화' 기획

5월 매주 토요일 특별법회
불교국가 스님 초청해 법문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에서 세계불교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법석이 마련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질적인 성지순례는 불가능하지만, 해외 불교국가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세계일화(世界一花)' 의 가르침을 되새긴다는 취지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와 조계사청년회(회장 이수민)는 5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경내 대웅전에서 '늘 이웃과 함께, 청년불자를 위한 특별법회 〈세계일화(世界一花),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다!〉' (이하 특별법회)를 개최한다.

5월 29일까지 총 4회 진행될 특별법회는 한국에 거주하는 스리랑카, 티베트, 네팔, 대만 불교의 스님들을 초청해, 해당 국가의 불교 문화를 접하고 부처님 오신날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5월 8일 아산 스리랑카사찰 마하위하라 주지 담마끼띠 스님의 스리랑카 불교 이야기를 시작으로, 5월 15일 부산 광성사 주지 소남 스님의 '티베트 불교' , 5월 22일 서울 불광산사 주지 의은 스님의 '대만 불교' , 5월 29일 동국대 불교학박사 각려효 스님의 '베트남 불교' 주제 법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계 부처님오신날의 특징과 한국불교와의 차이점, 그들이 받아들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등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특별법회에서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떠나는 랜선 성지순례' 도 선보인다. 해당 불교 국가의 사원과 유적지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소개하며 해외여행 특히 성지순례를 떠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랜다는 취지다. 그간 해외 불교 성지, 불교 사원을 다녀온 법우들의 여행 사진과 영상도 함께 소개하며 추억 여행을 떠나는 시간도 마련했다.

특별법회를 기획한 이수민 조계사청년회 회장은 "매년 봉축기간 마다 법우들과 함께 연등회를 준비하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2년째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워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서 해외 불교국가 스님들을 조계사로 모셨다"고 전했다.

이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며 법회를 준비할 예정이며, 특별법회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도 기획 중이니 청년불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실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법회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진행되지만 사찰을 찾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유튜브 '조계사청년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송지희 기자

민추본 인천본부 출범…본부장 선일스님

5월 4일 인천 법명사서 발대식
부산 이은 두 번째 지역 본부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가 인천본부를 출범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운동의 지역적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민추본 인천본부는 부산에 이은 두 번째 지역본부다. 인천 보명사 회주 선일 스님을 초대 본부장으로 지역 불자들을 상대로 한 통일 인식 개선 및 관련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민추본은 5월 4일 인천 법명사에서 '민추본 인천본부 발대식' 〈사진〉을 진행했다. 민추본 인천본부 초대 본부장에는 법명사 회주 선일 스님이 임명됐다. 본부장 월우 스님은 선일 스님에게 임명장과 '인천지역본부 현판' 을 전달하며 "인천지역에서 통일정토 구현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본부장 선일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인구 300만의 대도시 인천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실향민이 다수 거주하는 특별한 지역"이라며 "인천에서 평화통일 열기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민추본은 인천본부 출범을 시작으로 연내 강원본부와 제주본부 등 지역본부를 추가로 발족할 계획이다.

송지희 기자

인도 불상 기증으로 싹트는 韓·印 교류

서울 인도문화원서 4월 30일 통도사 불상 이운법회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인도 정부의 통도사 인도 불상 기증을 계기로 양국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인도에 대한 한국불교계의 도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불보종찰 통도사에 봉안될 인도불상의 이운을 앞두고 4월 30일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인도문화원에서는 이운법회가 진행됐다.

법회에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을 비롯한 통도사 스님 20여 명과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 스님, 스리프리야 인도대사 등 인도대사관 관계자, 여한구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 등이 참석했으며, 축원의식과 함께 인도 전통공연 등이 펼쳐졌다. 이날 이운법회 전 인도불상은 안전문제로 무진동차에 실렸으며, 이운법회서는 불상 사진으로 단에 모셔졌다.

이번에 통도사에 기증된 인도불상은 인도 전통양식으로 조성된 것으로 청동을 주재료로 해 무게가 225kg에 달한다.

이 인도불상은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가 지난해 10월 20일 진행된 통도사 방문서 불교영화 상영 및 불상 기증을 제안하며 인도에서 제작됐다. 이후 2월 16일 인도정부가 조성 중인 불상을 4월 중 한국에 모시기로 하고 통도사에서 봉불식이 준비됐다.

4월 15일 인도에서 특별 제작된 불상이 항공편으로 인도대사관 인도문화원에 먼저 모셔졌으며, 이날 이운법회를 통해 통도사로 이운이 시작됐다. 이 불상은 5월 16일 통도사 국제템플스테이관에 봉안된다. 통도사 측은 불상 봉안 후 인도문화재 디지털 전시회 및 인도 영화 상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印 전통양식 조성 청동불상
통도사 템플스테이관 봉안
구호 기금 · 물품 전달 예정
"코로나로 시름, 인도 돕자"

이번 불상 기증을 토대로 양국 교류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통도사 측은 법회에서 기금 3000만 원과 방역물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시름하는 인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인도불상 이운법회서 통도사 스님들이 축원의식을 하고있다.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는 "통도사뿐만 아니라 한국불교계의 많은 분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를 이어갔으면 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불교계 협력 뿐 아니라 한국과 인도 국민들의 교류도 확대됐으면 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도 "인도 대사께서 통도사의 아름다움에 무엇을 더했으면 좋겠냐는 말에 인도 부처님 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흔쾌히 인도 정부서 부처님상을 보내 주셔서 감사하다. 인도와 한국간의 교류 증대와 함께 부처님 가피로 하루 빨리 역병이 소멸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계종 차원에서 부처님 성도지인 인도 부다가야에 분황사 불사를 진행 중인 만큼 이번 불상 기증을 계기로 한 교류확대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 스님은 "불교는 인도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문화 교류와 발전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도 분황사 건립도 30% 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인도 수교 50주년과 맞물려 더 나은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조계종, 불교크리에이터 2기 위촉

포교원, 5월 6일 위촉식 개최


제2기 조계종 불교크리에이터 모습.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 포교를 담당할 조계종 불교크리에이터 2기가 위촉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5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크리에이터 2기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총 7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전달했다.

공모전 최우수 크리에이터로는 영상콘텐츠 '마음을 그리는 붓'의 장세경 씨와 웹툰 콘텐츠 '만근화'의 이재영 씨 등 2명이 선정됐다. 우수 크리에이터는 자홍 스님 · 이연수 · 장수현 씨 등 3명이 선발됐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미래 포교를 위해서는 새로운 미디어에서의 불교 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활동기간 동안 포교원의 얼굴이 되어 만화와 일러스트 등 신선한 불교콘텐츠로 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위촉된 2기 불교크리에이터들은 활발한 창작활동을 통한 불교콘텐츠 진흥에 앞장 설 것임을 다짐했다.

장세경 씨는 "불교 그림 영상을 통해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음을 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말했으며, 이재영 씨도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웹 콘텐츠를 만들겠다. 개인적으로 영광스런 자리"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포교사단 팔재계 법회 코로나로 취소

5월 4일 운영회의서 결의…범해 스님 "전법" 당부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방창덕)이 5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차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올해 팔재계수계대법회를 취소키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치로 포교사단은 정기연수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제26회 포교사 고시 1차 합격자 연수 등은 7월까지 지역단 권역별로 진행키로 했다.

이날 전문운영위원 포교사 11명에게 임명장도 수여됐다. 교육분야의 성혜란(자명호) 포교사, 복지분야의 김미경(수월관) 포교사가 대표로 임명장을 받았다. 또 포교사로서 10년 근속을 한 포교사 148명, 20년 근속을 한 포교사 151명에게 포교사 근속 휘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운영위 회의서는 제8대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포교사단 지역단장 간의 첫 인사가 이뤄졌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회의 전 법문을 통해 "종단서 포교사를 양성하는 이유는 부처님의 전법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며 "〈화엄경〉 현수품에는 신위도원공덕모라는 말이 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불성 그 근본을 믿고 특정 사람을 믿거나 말을 따라가거나 하면 안 된다. 마음 근육을 강화시켜서 어려울 때 부처님의 진리를 반드시 믿고 의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창덕 단장은 "정관개정 등 중요한 사안이 많아 한 자리에 모셨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차츰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포교사 389명 국제포교사 13명 합격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5월 4일 '제26회 일반포교사 및 국제포교사 선발 자격고시' 필기 합격자를 발표했다. 올해 일반포교사 선발 자격고시(이하 일반포교사)는 441명이 응시했으며, 389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88%다.

국제포교사 선발 자격고시에는 16명이 응시했으며, 13명이 합격했다. 일반포교사 전체 평균은 75점이고 국제포교사 전체 평균은 62점이다.

이번 합격자 중 최고득점자는 평균 99점, 총점 198점인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의 조OO 응시생이며, 최고령자는 78세, 최연소자는 24세로 기록됐다.

일반포교사 합격자들은 이후 온라인교육과 지역별 현장연수 등의 과정을 통해 10월 경 최종합격자로 선발된다. 국제포교사 합격자들은 이후 양성과정과 최종 면접을 통해 11월 경 최종합격자로 선발된다. 노덕현 기자

"대면 · 비대면 불교교육 포교 매진"

조계종 3급 승가고시에 수석 합격한 청라 스님



"3급 승가고시를 응시할 때만 해도 수석 합격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수석으로 합격해서 놀라기만 했죠. 지금도 어떤 소감이 있기 보다는 놀라울 뿐이죠."

조계종 3급 승가고시 비구 수석합격자인 청라 스님〈사진, 광명선원 원주〉은 수석 합격의 소감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선학이나 불교학을 공부하지 않았기에 "우수한 성적보다는 합격만 하자"고 생각하고 고시에 응시했는데 너무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기보다는 놀라웠다"는 것이다.

청라 스님은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출가 후에도 꾸준히 교육학 관련 공부를 이어갔다. 학부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아동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에서 교육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국대에서 교육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수료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이다.

3급 승가고시는 단답형 시험과 논술, 수행이력평가(면접)가 진행되는데 청라 스님은 논술과 면접에서 자신이 배워온 교육학과 불교 포교 방법론을 접목해서 이야기했다.

"코로나19 시대와 관련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현재 광명선원에서 어린이법회를 맡고 있는데 비대면 · 대면 혼합교육의 적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를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이론적 수업을 비대면으로 한다면, 대면은 실습이나 실기를 하는 것이죠. 거꾸로 학습법(Flipped Learning)도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영상이나 자료를 집에서 미리 학습하고, 교육현장에서는 토론,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불교 포교에 적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석합격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에 놓인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할 뜻을 내비쳤다. 우선,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잘 준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어린이 · 청소년 불교 학습 관련 교수방법을 교재로 묶어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선원에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좋은 불교 학습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정리하고 교사들이 잘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 자료들을 만들고 싶어요. 우선은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하고, 장기적으로 소의 걸음처럼 천천히 하나하나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개교 115주년 기념식 개최

5월 4일 본관 중강당서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5월 4일 교내 본관 중강당에서 '개교 11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기념사에서 "학생 50명 남짓의 작은 규모로 시작했던 우리대학은 어느덧 35만 명의 동문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민족사학으로 발돋움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지만,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모아 재학생들이 만족하고 졸업생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 더 나아가 민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연등회 홈페이지에 구현된 온라인 연등행렬. 참가 희망자는 소속단체와 아이콘을 선택한 후, 이름과 소원을 작성하면 된다.

몸은 멀어져도 "부처님 탄신 봉축" 한마음

'온라인' 중심 진행
불기 2565년 연등회
'집콕'하며 함께할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봉은사 유치부 연등 메시지.


불교중앙박물관 홈페이지의 연등회 특별전 VR 전시 모습.


진관사 어린이들의 율동 모습.

'온라인 연등회' 는 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원행)가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선보인 대안이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온라인 연등행렬' 이다. 도심을 오색 연등으로 수놓는 대규모 연등행렬을 연등회 홈페이지(www.LLF.or.kr)를 통해 구현했다. 장엄등과 연등행렬은 2D 일러스트로 재현됐으며, 행렬에 참여하며 들었던 흥겨운 연등행렬곡도 함께 들을 수 있다.

지난 4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오픈한 온라인 연등행렬은 시민과 불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 희망자는 소속단체와 아이콘을 선택한 후, 이름과 소원을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연등행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매일 500여 명 가량이 온라인 연등행렬에 자신의 소원을 작성해 참여하고 있다"면서 "대면하며 함께 하는 연등행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행렬에 참여하고자 하는 불자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연등행렬은 연등회 참가단체 및 사찰별로 특성과 상황에 맞게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소규모로 이뤄진다. '등(燈)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하는 퍼포먼스', '각자의 자리에서 등 달기', '연등 나눔 행사', '희망과 치유를 기원하는 탑돌이' 등이 5월 15일, 16일, 19일에 진행된다.

연희단 노래 · 율동 '따로 또 같이'

연등회 연등법회와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하는 기념법회는 5월 15일 오후 6시 조계사에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 된다.

연등법회에는 연등회를 함께 준비해 온 참가단체, 해외사찰 등을 줌으로 연결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함께 밝힌다. 축제 분위기를 더했던 어울림마당의 연등회 노래와 연희단의 율동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각자 자리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대신한다.

이를 위해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는 4월 7일부터 한달동안 연등회 율동 챌린지를 진행했다. 개인 및 2인 이상 팀들이 참여한 율동 영상들을 취합 · 편집해 연등법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축하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취지의 응원 메시지들도 속속 연등회보존위원회에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에는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유네스코 등재 인증서를 연등회보존위원장 원행 스님에게 전달하며,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하는 다양한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연등행렬 다음날 서울 종로 우정국로 일대서 열렸던 전통문화마당 · 공연마당은 영상 콘텐츠로 사전 제작해 5월 16일 공개될 예정이다. △DIY 전통무드등 만들기 △전통 금니 사불체험 △작은 팔모등 만들기 △연꽃컵등 만들기 △선무도 체험 △연꽃드림캐쳐 만들기 등을 연등회보존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체험해 보고 즐길 수 있다.

세계인에게 연등회를 알리기 위한 글로벌 서포터즈는 올해에도 구성됐다. 20개국 출신 주한 외국인 3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4월 8일 온라인을 통해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연등회의 역사 및 가치 교육, 등(燈) 만들기, 율동 영상 번역 등을 통해 서포터즈 각자의 개인 SNS에서 연등회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연등회 특별전 VR로 체험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인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는 VR로 안방에서도 관람이 가능하다. 연등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배너와 불교중앙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전시 VR 체험은 총 3부로 구성된 전시를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구현됐다. 우측 목차를 통해서 전시 해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등회 연등행렬 선두위장, 〈현우경〉 '빈녀난타품' 애니메이션 등의 동영상 콘텐츠도 만날 수 있다.

종로 나오면 소원지 작성을

혹시 한국불교 1번지 종로 견지동을 방문하게 된다면, 찾을 곳이 있다. 바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문화사업단은 5월 19일까지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소원지 쓰기,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 불교문화 콘텐츠 전시, 체험 키트 나눔, 문화상품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꿈과 희망의 소원지 쓰기' 이벤트로 참가한 모든 이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사진전, 부처님오신날과 관련된 불교문화 콘텐츠 디자인도 함께 전시한다.

집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기획, 문화사업단에서 자체 제작한 연꽃등 및 합장주 만들기 체험 키트를 무료 배포한다. 문화사업단에서 디자인 개발한 불교문화 상품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비대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불교문화 콘텐츠를 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부산·경남, 희망과 치유의 등 밝혀

점등 법회 및 코로나19 극복 발원

하성미 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이도경 부산지사장

코로나 극복기도도 이어가
소상공 · 의료인 나눔 활동
도농 구분 없이 봉축 기념
"타인슬픔 보듬는 빛되길"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희망과 치유를 기원하는 봉축 장엄등이 부산과 경남 일대에 불을 밝혔다. 사진은 5월 1일 부산 송상현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점등식.



부산 송상현 광장에 불을 켠 장엄등 모습. 축제 기간 동안 500여 장엄등이 불을 밝힐 예정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희망과 치유를 기원하는 봉축 장엄등이 부산과 경남 일대에 불을 밝혔다.

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회장 경선)는 5월 1일 부산 송상현광장 특설무대에서 '불기 2565년 부산연등축제 개막 점등식'을 봉행했다.

점등식에 앞서 '코로나19 극복과 국운융창, 부산발전 및 안녕을 기원하는 릴레이기도' 입재가 먼저 진행됐다.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마나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기도에서 참가한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은 코로나가 사라지길 간절히 기원했다. 상임부회장 진광 정사의 발원문 낭독과 함께 참석 대중들은 코로나19 극복 및 미얀마 평화를 발원했다.

2부인 점등식에서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은 "부산연등축제 시작과 함께 부산 시민들을 향한 대자비 등불을 밝힌다"며 "부처님이 걸으신 대자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밝게 비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부산연등축제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나눔과 의료진 격려도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불교계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산의료원을 중심으로 의료진에게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릴레이 기도에서 108배를 통해 십시일반 동참할 수 있다.

남해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각)는 4월 29일 남해 유배문학관광장에서 봉축점등식을 봉행했다.

남해불교사암연합회는 점등식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코로나19가 극복되고 온 세상이 치유의 가피로 행복해지기를 기원했다. 점등식에서 회장 성각 스님은 "어두울수록 등불을 찾듯이 혼탁한 시대일수록 부처님께서 사바에 오신 참뜻을 알아야 한다"며 "인류의 화합과 공생을 위한 연등을 켜고 대광명을 밝히자"고 당부했다.

통영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종묵)도 5월 5일 항남동오거리에 봉축점등식을 봉행했다.

통영시불교사암연합회는 '희망과 치유의 등불'로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점등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원 스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개최됐으며 점등의식 및 석가모니불 정근 탑돌이 등도 진행됐다.

진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불암)는 5월 2일 경남예술문화회관 공원광장서 봉축점등식을 봉행했다. 점등식에는 회장 불암 스님, 도각 스님, 적민 스님, 진여 스님, 성륜 스님, 정혜 스님, 보광 스님 등 지역 사찰 주지 스님들이 동참했다. 회장 불암 스님은 "국민들이 건강하고 코로나도 하루 속히 소멸돼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는 4월 30일 남부경찰서에서 봉축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점등식에는 회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대각 스님, 김만수 남부경찰서장 등 신도들이 동참했다. 부산불교진구연합회(회장 영제)는 5월 2일 부산 서면로터리 영광도서 앞 광장에서 '부산진구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법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산재와 점등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교계언론 종사자 자녀 장학금 전달식 및 공로패와 감사패 전달식도 이어졌다. 감사패는 수궁사 춘제 스님이, 공로패는 육조사 법봉 스님, 약사암 태산 스님이 받았다. 사상구불교연합회(회장 성문)도 5월 1일 부산 서부터미널 애플아울렛별관 앞에서 봉축점등식을 개최했다.

견강암, 어버이날 '孝心 육개장' 눈길

5월 6일 500인분 전달

자비나눔 도량 부산 견강암이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육개장을 전달했다.

견강암(주지 향공)은 5월 6일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위치한 고동바위에서 '효심(孝心) 육개장'을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견강암은 매월 2회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을 진행해 왔지만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찾아가는 급식 및 나눔을 전개하고 있다. 육개장은 총 500인분으로 마련됐으며 도시락으로 포장해 찾아오는 지역 어르신에게 전달됐다.

견강암 주지 향공 스님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묻기 위해 나눔 공양을 마련했다"며 "효는 불교의 중요한 덕목이다. 마을에서 뵙는 모든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지만 멈추지 않고 봉사 나눔을 실천해주는 정각원 불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견강암은 4월 13일과 20일 모라동 일대에 자장면 총 3000인분을 전달했으며 모라동 동사무소에서 소외가정을 추천받아 밑반찬 나눔 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영상 통해 만나는 '반야참회' 개설

6월 1일 개설, 5개월 간…"참회는 수행의 기초"

구체적인 참회로 지혜 반야를 일으키는 〈반야참회〉가 영상을 통해 대중과 만난다.

〈반야참회〉의 저자 혜룡 스님은 6월 1일 반야참회 영상강의를 시작한다. 영상강의 반야참회는 108배와 자비도량참법 등 참회법으로 신구의(身口意) 삼업을 청정하게 하도록 돕는다.

이번 반야참회 영상강의는 줌(Zoom) 프로그램을 활용해 저자 혜룡 스님과 문답도 할 수 있다.

개강은 6월 1일로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5개월간 진행된다. 교재는 〈반야참회〉로 동참비는 월 5만 원이다.

혜룡 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 후 서울대 대학원 종교학과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범어사, 쌍계사, 화엄사 승가대 교수를 역임했다.

반야참회 신행모임은 "참회는 불교신행의 기초이지만 많은 불자들이 참회법을 몰라 신행에 혼란과 방황을 겪고 있다"며 "기도와 수행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싶은 불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010)8995-0743


구체적인 참회로 지혜 반야를 일으키는 '반야참회'가 영상을 통해 대중과 만난다. 책 〈반야참회〉의 저자 혜룡 스님이 6월 1일 반야 참회 영상강의를 개강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도시 재생, 사찰이 앞장서다

행복선원, 5월1일 행복문화제 '다시 봄 그리고 치유' 주제로

친환경 문화포교도량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부산 북구 덕천동에 위치한 행복선원(주지 윤광)은 5월 1일부터 2일까지 '2021 다시 봄 그리고 치유' 행복문화제를 개최했다. 또 행복문화제에서 부산행복네트워크 출범도 알렸다.

행복문화제는 다양한 전통공예 및 친환경 제품을 전시 소개하고 코로나19 치유와 극복을 발원하는 행사다. 행복문화제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려 주민들에게 치유의 장을 선사했다. 행복선원 측은 한지공예, 목공예, 그림, 사진 등 친환경 작품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중요성을 알렸다.

행복선원이 행복문화제를 열게 된 것은 사찰 탄생 배경과 관련이 깊다. 행복선원은 폐업한 목욕탕을 리모델링 해 도량으로 탈바꿈 한 곳이다.

부산 북구에 위치한 행복선원은 2016년 개원 후 봉사신행모임 '자비회'로 지역사회 나눔과 포교에 앞장서 왔다.

2019년 10월 20일 부산친환경생활지원센터 북구도시재생환경공동체와 협약식을 진행해 폐업한 목욕탕을 인수, 리모델링하여 연면적 990㎡, 총 4층 규모로 템플스테이관, 법당 및 종무소 등으로 구성하고 3월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 행복선원은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 모델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행복선원 주지 윤광 스님은 "몸의 때를 씻는 목욕탕서 마음의 때를 씻는 사찰로 거듭났다"며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행복선원은 앞으로 지역민들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행복선원은 이름 그대로 행복이 쌓이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재탄생이란 말이 어울리는 공간으로, 지역민에게 희망을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선원은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2021 다시 봄 그리고 치유' 행복문화제를 행복선원 일대서 개최했다. 사진은 행복문화제에서 진행된 부산행복네트워크 출범식.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고담정토문화원, 자비의 쌀 전달식

5월 4일 백미 1000kg 전달

사단법인 고담정토문화원(이사장 고담)은 5월 4일 부산 천불정사에서 '고담정토문화원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고담정토문화원은 이날 자비의 쌀 1000kg(50kg 20포대)를 부산 금정구 장전2동 행정복지센터에 희사했다. 자비의 쌀은 지역 소외 이웃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고담정토문화원 이사장 고담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소외되고 어두운 곳곳에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사단법인 고담정토문화원 설립을 계기로 자비실천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호남 각 지역에 코로나 극복 봉축탑 불 밝혀

광주 · 고창 등에서 불교계 한마음 모여

고창 선운사 고창군청서 광주불교계, 수완호수 등 시민명소에서 점등 개최





호남 각 지역에 봉축탑이 세워져 시민들에게 부처님오신날을 알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고창군청 앞 점등식. 사진 오른쪽은 광주 수완호수공원 봉축탑 모습.

조동제 전북지사장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호남 각 지역에서 점등식이 진행됐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4월 30일 고창군청 앞 광장에서 봉축탑 점등법회를 개최했다. 법회는 풍물패의 식전공연에 이어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 찬불가, 인사말, 격려사, 축사, 발원문 낭독, 선운사합창단의 음성공양, 점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점등식에는 주지 경우 스님, 내장사 주지 대원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종회의원 재안 스님, 태효 스님, 상원사 주지 대륜 스님 등 본말사 스님들과 유기상 고창군수, 최인규 군의회의장,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기관장, 선운사 합창단 등 불자들이 동참해 점등을 축하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봉축 장엄등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온 모든 군민과 의료진, 경찰, 소방관 등 모두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며 "봉축탑 불빛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등불이 되고 희망과 용기를 나누는 자비광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불교계는 코로나로 인한 아픔을 국민과 나누어 왔다. 이제는 국민과 불자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사회에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며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삶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자"고 밝혔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축사를 통해 "어려운 가운데 선운사 스님들과 불자들이 마음을 내어 준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한 것"이라며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뜻을 알고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원하자"고 말했다.

봉축탑 점등에 이어 선운사 합창단의 음성공양이 이어졌다. 고창군청 앞 오거리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봉축탑은 높이 10m규모로 부처님오신날까지 불을 밝히고 고창군민들에게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는 4월 30일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5월 4일 광천버스터미널에서 점등식 행사를 갖고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민들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했다. 이 두 곳은 각 자치구에서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이자 광주를 찾는 출입구 역할을 하는 곳으로, 올해 처음으로 봉축탑이 설치됐다. 행사에는 도성 스님을 비롯한 광주불교연합회 임원스님들과 각 지역 사찰 스님, 신도회, 각 구청 불자회 등이 참여했다.

도성 스님은 수완호수공원 점등식에서 봉행사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힘들게 버텨 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힘내시라'는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오늘 봉축탑을 점등함으로써 병환에 있는 환우들은 빠른 쾌유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들에게 큰 위안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천터미널 점등식에서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장 혜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밝히는 전통의 불빛이 이곳을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등불이 되길 바란다. 봉축탑은 다시 문화가 교류하는 평상시 생활로 돌아오기를 서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수완호수공원에는 정림사지5층 석탑을 한지등로 재현한 봉축탑이, 광천터미널에는 성덕대왕신종을 한지등으로 재현한 봉축탑이 세워져 5월 23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광주불교연합회는 5월 7일 광주공원, 10일 광주역 앞 광장에서도 점등식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 동원사 10년간 지역나눔

10년간 생일 비용 모아 회향

10년째 생일을 지역주민들과 나눔 잔치로 여는 노스님이 화제다. 광주 무등산 동원사(주지 지장)는 5월 6일 회주 지각 스님 생일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젓갈과 장아찌세트'를 전달했다.

10년 전 칠순잔치 축하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잔치로 진행하며 시작된 지역나눔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홀로 생활하는 어른들을 위해 집반찬 배달로 진행됐다.

집반찬은 젓갈(갈치속젓, 가리비젓, 새우젓, 밴댕이젓), 장아찌(깻잎장아찌, 양파피클)로 구성됐다. 여기에 건강을 생각해 '자색양파즙'까지 정성껏 담아 지산 1,2동 산수1,2동 200분의 어르신에게 전달됐다.

지각 스님은 "오랜 세월을 힘겹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인해 더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오늘 드리는 선물세트가 어르신들이 이 힘든 시기를 건강하게 극복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5월 1일 안동 웅부공원에 점등된 안동봉축등의 모습.

안동사암聯, 봉축등 점등식

안동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륜)는 5월 1일 안동시 웅부공원 경내 영가헌 앞뜰에서 봉축탑 및 봉축연등을 점등했다.

이날 봉축등 점등식에는 안동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도륜 스님과 광흥사 주지 구견 스님, 서악사 주지 함흥 스님, 천태종 해동사 도선 스님, 진각종 옥정심인당 도경 정사 및 김형동 지역 국회의원, 김홍석 안동시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회장 도륜 스님은 "어려운 시기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힐 수 있어 감사하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비의 등불을 밝혀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고난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인사했다.

천태종 해동사 주지 도선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고 공양하여, 이 땅의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 비춰지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봉축등 점등식 후에는 공원 경내 종각 앞 광장에서 봉축탑 점등 등이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인천 지장기도 근본도량 자리매김"

지장 성지 수승사 4월 29일 사찰개원 및 점안법회 봉행 5월 31일까지 지장보살상 친견 및 참배 행사 진행해



인천 수승사는 4월 29일 사찰 개원 및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지장기도성지인 한국불교 태고종 인천 수승사가 4월 29일 사찰 개원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증명법사로 성오 스님(태고종 총무부원장) 청공 스님(태고종 충남아산종무원장) 성혜 스님(태고종 서울중부종무원장)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성오 태고종 부원장 스님은 "흔히들 스님이 되면 속세를 떠난다고 한다. 하지만 수승사 주지 법오 스님은 도심 속에서 속세를 떠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불법을 열심히 전할 것"이라며 "저희 한국불교 태고종 재가승 제도에 입교해 교육을 마친 법오 스님은 학식과 덕망을 두루 갖춘 수행자로서 전법과 포교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에 나갈 것"이라고 축하했다.

수승사 주지 법오 스님은 "사찰 창건을 마음먹고 수행하던 중 뜻하지 않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인 지장보살님과 여러 팔부신중님들을 차례로 친견하게 됐다"며 "뛰어나며 승승장구하다는 의미인 수승사(殊勝寺)란 이름처럼 불제자 모든 분들이 뛰어나고 수승한 존재가 되기를 발원하며 사찰을 창건하게 되었다"고 사찰 창건 계기를 말했다.

이어 법오 스님은 "저희 수승사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이신 지장보살님을 친견하고 부처님 가피를 듬뿍 받아가시길 바란다"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여법한 삶을 사시는 불자들이 되시길 부처님 전에 합장 발원한다"고 말했다.

수승사는 개원 기념으로 5월 31일까지(오전 9시~오후 6시) 지장보살 친견 및 참배 행사를 갖는다.

수승사에는 청년 불자들을 위해 문화카페 공간도 마련해 놓았다.

수승사 측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기도와 함께 문화 생활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법주 능화 스님(인천 종무원장), 혜일 스님(제주 정방사 주지), 진화 스님(전법사 회장, 등고사 주지) 등 사부대중 1백여 명이 참석했다. (032)543-6606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고창군사회복지시설 어버이날 행사 진행

선운사서 위탁 운영하는 고창군사회복지시설이 제49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관에서는 5월 6일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를 주제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자녀들을 대신해 복지사들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주고 부모사진을 자녀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사랑의 포토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거동이 불편하여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고수면 평지경로당 외 11개소 이용자, 밑반찬서비스 어르신 등 868명에게 복지관 직원이 직접 찾아가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고 선물도 전달했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장 대원 스님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농촌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이 각박해지고 부모와 자녀간의 만남이 어려워져 큰 걱정이 되고 있다"며 "오늘 행사로 인해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로효친사상과 가족 사랑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日, 코로나 장기화로 사찰 소멸 심각

좋은절연구회,
4월 21일 분석해 보도

총 수입 47% 감소 현황
경제적 압박 가중 위기
주요종단 수입도 반토막

박영빈 객원기자


도쿄의 대표적인 사찰인 죠조지(增上寺). 사진출처=프레지던트 온라인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계속되는 확진자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재정이 취약한 사찰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월 21일, 일본의 '프레지던트 온라인'은 해당 뉴스를 특별 보도했다.

일본 사회에서 사찰의 현대적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는 '좋은절연구회' (이하 연구회)는 지난 해 일본 주요 불교종단에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유행의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좋은절연구회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찰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된다면 향후 불교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함께 제안했다.

'코로나 감염 유행이 사원 수익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예측' 이란 이름으로 공개된 조사 보고서에서 좋은절연구회는 "코로나 재난이 '사찰 소멸'을 보다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 영향은 일반 사회와 국민에게까지 이를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에서 좋은절연구회는 일본 불교계 전체 시장규모를 분석해 약 5700억 엔 규모로 추정했다. 이는 사찰 약 7만 7000여 개소의 수익을 분석한 것으로 이는 주요 종단이 공시하는 재정 규모를 토대로 보면 2005년 약 4000억 엔 규모에서 35% 가량 성장한 것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약 47%에 달하는 2700억 엔의 수입 감소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좋은절연구회 외 기타 조사기관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일본 불교계의 수입 감소는 46~47%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의 감염이 극심했던 도쿄를 중심으로 한 칸토(關東)지구는 가장 불교 교세 침체가 강해 이 지구 내에서만 사찰들의 수익감소가 32.7%에 달했다.

주요종단의 코로나19 영향 하에서의 재정 공시 또한 일선 사찰들의 소득이 감소했음을 전하고 있다.

일본 조동종이 2020년 6월 발표한 조사보고에서는 소속 사찰의 79%가, 일본 정토종이 발표한 공시자료에서는 소속 사찰의 84%가 전년 대비 수입이 감소했다.

좋은절연구회 측은 이번 보고서에서 주요 종단의 월 평균 재정 수입으로 정토종 800만 엔, 조동종 700만 엔, 정토진종 720만 엔으로 추정 집계했다.

이는 주요종단 또한 군소종단에 비해 재정수입이 절반가량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 받던 주요종단 등 불교 전체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의미한다.

좋은절연구회 측은 "사찰 재정 수입 감소는 '사찰 소멸'의 가속화를 부르며, 이는 결국 일반 시민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연구회 측은 "일부에서 '입장료와 상품 판매 등 기타 수익'을 이야기하지만, 사찰의 주요 수입은 상장례와 제사 등의 법요 보시금"이라며 "지금과 같은 일본정부의 '3밀 정책(밀폐, 밀집, 밀접)'이 지속되는 한 입장료는 커녕 일반적인 주요 수입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좋은절연구회 측은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자리한 사찰이 소멸하면 사찰이 운영 중인 각종 문화센터와 지역상권 등도 영향을 받기에, 지역경제공동체 유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태국불교계, 연이은 부패로 몸살

출가자 금융스캔들까지 터져


체포되는 매치우 스님. 사진출처=치앙라이 타임즈

태국 불교계가 연이은 승단의 부패 문제 발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4월 29일 '방콕 포스트', 'UCA 뉴스' 등의 외신들은 최근 태국에서 출가자들에 의한 금융 스캔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태국에서 일어난 최근의 불교계 금융 스캔들은 미화 31만 달러(한화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사건이다.

방콕 근처에 소재한 명상센터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구족계를 받은 비구니라고 주장하는 3인의 여성 출가자들에 의해 일어났다. 이들은 약 400명의 신자들에게 저명한 고승들이 함께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피라미드식 투자사기를 벌였다. 그러나 약속된 수익금을 배당받지 못한 신자들이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주범격인 매치 우 스님은 "보시자들에 의해 모인 기금들은 모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사업에 사용됐다. 고수익을 바라는 것은 오히려 탐욕스러운 생각"이라며 사기혐의를 부인했다. 매치 우 스님은 "보시는 그들의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며, 초기의 투자금은 모두 길상한 때를 자연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치 우 스님은 이미 태국 북부의 나콘파놈주에 이미 거대한 명상센터를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 종교국 담당자는 "매치 우는 구족계는커녕, 실제 출가생활을 한 적 없는 가짜 출가자"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태국국가불교청의 부패관료들과 여러 대형사찰의 고위 승려들이 비밀리에 불교청에 할당된 예산을 사찰들이 유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2017년 한 사찰이 예산 보고를 하며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최근까지 밝혀진 사건의 전체 규모는 2억 7천만 바트(한화 약 96억 4천만 원)다.

또 태국불교계서는 한 저명한 스님이 방콕 에메랄드 사원에 봉안된 에메랄드 불상의 대형 모조품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보시금을 모아 호화 부동산과 고가의 외제차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박영빈 기자

미얀마 불교계, 무슬림에게 흰 장미 전달

종교간 화합 위한 노력 이어가

2019년 라마단 폭력사건 참회
이슬람 화합서 종교화합 확대


2019년, 무슬림들에게 흰 장미를 건네는 사야다타 스님. 사진 출처=글로벌 보이스

로힝야족 사태를 비롯해 미얀마 내 이슬람교도들과 오랜 갈등을 빚어 온 미얀마 불교계가 종교 간의 반목과 혐오를 멈추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흰 장미 캠페인'이라고 불리는 이 운동에 대해 지난 4월 27일 일본의 '글로벌 보이스'가 보도했다.

'흰 장미 캠페인'은 2019년 이슬람교의 최대 금식기도 기간인 라마단 기간에 일부 불교극단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로 구성된 무장 시위대가 라마단 예배를 보는 이슬람 예배당을 습격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 약 100여 명의 시위대는 양곤 시내에 라마단 예배를 위해 개설된 3곳의 임시 예배당을 습격했으며 몽둥이와 칼 등으로 무장한 채 예배당을 폐쇄하라고 협박했다. 이 시위대의 일부에는 극단주의 출가자들도 있었다. 습격당한 임시 예배당은 정부와 지역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시설이었다.

한편 이러한 폭력에 반대한 불교단체와 시민들은 바로 이슬람교도들과 예배당에 평화를 상징하는 흰 장미를 보내는 '흰 장미 캠페인'을 시작했다.

종교 간의 대화를 이끄는 판닷다 사야다타 사야도 스님을 대표로 한 이 캠페인은 라마단 기간 동안 이웃인 이슬람교도들에 대해 혐오와 공포를 그치고 격려와 지원의 마음을 전하자는 목표를 내세웠다.

흰 장미 캠페인을 진행하는 미얀마 불교계는 "평화를 위한 흰 장미는 사랑과 공정, 조화로운 사회를 중시하는 미얀마 국민들에 의한 운동"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곤 청소년 네트워크도 "미얀마에는 종교적 극단주의자를 위한 곳은 없다"라는 구호를 SNS 프로필로 사용하는 운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운동은 곧 양곤뿐만 아니라 만달레이, 사가잉 등 주요 도시로 번져 나갔으며 미얀마인 공동체가 있는 주변 국가에서도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캠페인은 이슬람교 혐오뿐만 아니라 민족과 종교에 관계없이 평화를 격려하고 지원한다는 뜻으로 확대돼 전개 중이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라마단 기간을 맞아 복잡한 국내사정과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보이스 측은 흰 장미 캠페인을 이끄는 시민단체의 발언을 인용해 "미얀마에 부도덕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을 곳이 없다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낼 때, 사회의 명확한 도덕적 변화가 올 것"이라며 "캠페인과 함께 현재의 어려운 시국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이들이 보였다고 전했다.

박영빈 기자

달라이라마,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

코로나 구호기금 기부 독려도


관저에서 인사를 보내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다. 4월 27일 '인디아 투데이', '더 트리뷴' 등의 외신은 "달라이라마가 4월 27일 관저에서 2차 접종을 완료했고, 코로나 구호기금 기부도 독려했다"고 전했다.

3월 6일 인도 다람살라의 코로나 백신센터서 1차 접종을 한 달라이라마는 4월 27일 자신의 관저에서 2차 접종을 완료했다. 1차 접종시 달라이라마는 "특별한 부작용은 보이지 않으며, 모두 용기를 가지고 백신을 맞으라"며 백신 거부 풍조에 반대하고 접종을 독려하기도 했다.

2차 접종은 달라이라마 양방 주치의인 체텐 도르제 박사가 이끄는 의료진이 진행했다. 달라이라마와 함께 관저 직원과 보안요원들도 백신을 접종했다.

달라이라마는 이날 인도정부가 설립한 코로나 비상상황 시민지원 및 구호기금(PM-CARES)에 기부하며 대중들의 기부도 권했다.

달라이라마는 "인도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PM-CARES에 대한 기부는 인도 형제자매들을 향한 연대의 표시"라며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노력, 특히 일선에서 용감하게 봉사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현재 인도는 일평균 3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의료붕괴도 우려된다. 인도 정부는 달라이라마 기부와 함께 PM-CARES 기금을 가장 먼저 의료용 산소를 보급하는 데 사용할 것임을 밝혔다.

박영빈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5~5/1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2	불교성전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3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4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김윤수	한산암
5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 구슬	김성철	오타쿠
6	딱돌 해설서 : 바르도에서 닦지 않고 해탈하는 법	중암선해	금빛소리
7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 내려놓고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	법륜스님	정토
8	초기 불교 입문 : 초기 불교 그 핵심을 담다	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
9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 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10	염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권수염불법문)	원영굉오/정원규	불광출판사

책세상

빛바랜 원고로 만난 불교학 거장 '운허 스님'



운허 큰스님의 한산시와 남은돌 모둠
김연호 엮음
맑은소리맑은나라 펴냄
2만 2천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한국불교 교학의 거장 운허 스님의 원고가 역사 속에 사라질 위기에서 한 재가자의 노력으로 책 〈운허 큰스님의 한산시와 남은돌 모둠〉으로 탄생했다.

5년 전 지인이 보낸 빛바랜 원고서 목청 김연호 거사(제천 우리는선우 지회장)는 행운을 예감했다. 사연이 깊어 보이는 원고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귀한 보물을 얻게 됐다는 기쁨으로 그는 전율했다. 원고는 운허 스님이 국문으로 번역한 한산시(寒山時)였다. 김연호 거사는 "일평생 구도자의 본연을 다하셨던 운허 큰스님의 진면목이 묻어나는 육필을 갖게 된다는 것은 나의 불교 운동 반세기에 안겨진 큰 선물이었다"고 회고 했다.

서찰 4통과 한시 번역 원고 100여장은 무슨 이유인지 출간 되지 못한 채 원고로만 남아 있었고 김연호 거사는 겉봉투 부터 살피기 시작했다. 운허 스님이 발송한 서찰의 겉봉투에 적힌 주소는 진주 연화사 였다. 김 거사는 원고와의 만남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의 대불련 시절 '나의 불심이 곧 행복' 이라는 등식을 안겨 준 곳이 진주 연화사였고, 연화사는 그에게 불심의 고향이었다.

그는 원고가 갖고 있는 의문점을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했고 책으로 정리해 출간했다. 한산시는 당나라 중엽에 절강성 천태산 국청사 근처에 살던 어느 은자의 시이다. 선(禪)을 시로 풀어낸 불교문학의 고전으로 불리며 불교문학사의 큰 획을 그은 작품으로 분류된다. 운허 스님은 선승이자 한국 근세 불교의 3대 대강백(운허, 관응, 탄허) 중 한명이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며, 20세기 한국 불교 최대의 불사로 불리는 〈한글 대장경〉 번역을 주도해 문화계 종장으로 불린다.

운허 스님의 한산시 번역 시기는 1950년대로 추정되며, 한글대장경 번역의 선구자이자 당대 최고 선지식의 안목으로 펼쳐 보인 최초 한글번역 선집으로 의의가 있다.

이번 책에는 운허 스님이 진주시 옥봉동 연화사에서 52번부터 247번까지 역주한 내용 중 총 94편을 담았다. 운허 스님의 육필 유고를 생생히 전달키 위해 현대 철자법을 따르지 않고 본 원고 그대로 옮겼고, 유고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진으로 작업해 엮었다. 아울러 운허 스님의 영정, 연보, 역저서 목록 등 운허 스님의 일대기 및 활동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한 운허 스님의 한산시 유고를 고증하는 가운데 새롭게 발견 한 '남은돌 모둠(여석회)' 을 소개했다. '남은돌 모둠' 은 운허 스님을 중심으로 불법의 대중화를 위해 15명의 원로 스님이 함께 한 모임이다. '남은돌 모둠' 의 행적을 사진과 자료로 제시해 근현대 한국불교의 실상을 알게 해주는 실질적인 자료이자 총람이 됐다. 남은돌 모둠서 활동한 스님은 운허 스님 홍경 스님 자운 스님 벽안 스님 고암 스님 석주 스님 서옹 스님 월하 스님 석암 스님 영암 스님 구산 스님 대휘 스님 지월 스님 등이다. 1962년 부산 청량사와 김해 육주사서 예비모임을 가진 뒤 15년간 17회까지 지속된 종단 어른스님들의 활동상을 이 책에서 마주할 수 있다.



1964년 6월 2일 부산 청량사서 열린 제5회 '남은돌 모둠' 행사에 모인 스님들. 앞줄 왼쪽서 두번째가 운허 스님.

한시 미발표 원고 100여 장이 시발점
운허스님 연화사서 역주한 내용 94편
철자법 안따르고 본원고 그대로 옮겨

한국불교의 미래를 염려하는 내용과 유신난국 속 스님들의 활약을 함께 엿볼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수확이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한산시 해제' '남은돌 모둠 해제' '운허 큰스님 육필 서간' 등을 덧붙이는 부록이 담겼다. 특히 '한산시 해제' 는 김연호 회장의 아들이자 현재 동아시아학 박사과정에 있는 여철 스님이 '한산시와 운허스님의 한글 역주 한산시 선집에 대한 일고찰' 을 주제로 게재해 눈길을 끈다. '한산시와 운허스님의 한글 역주 한산시 선집에 대한 일고찰' 에는 한산시의 판본, 한산시 저자의 생존 연대, 근현대 한산시 한글 번역의 흐름, 한산시 선집의 특징을 챕터별로 정리했다.

목청 김연호 거사는 재가 불교 운동 50주년을 맞았다. 뛰어난 문화의식으로 향토 문화재 수집과 불교문화 지키기에 앞장서 왔으며 단순한 수집이 아닌 대중과 나누는 회향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그는 국립 청주 박물관에 두 차례 문화재를 기증했으며 스님들의 선묵 전시회를 열어 불교문화의 향연을 선사했다.

김연호 거사는 "재가 불교 운동 50주년을 맞았다. 조금이나마 불법 홍포에 기여한 바 있다면 오직 그것은 여러 수승한 고승 대덕들의 삶을 흉내내고자 하는 몸부림이었다"며 "운허 큰 스님을 비롯한 남은돌 모둠 스님들께서 이 시대 우리 곁에 함께 하신 큰 행운과 영광을 한없이 수희찬탄하며 추모의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저자 목청 김연호 거사는 1952년 하동 진교에서 출생했다. 국립경상대학수의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제천에서 동물병원 운과 재가불자회 '우리는 선우회장' 이자 제천문화재단 이사장이다.

주요사회 활동사항은 2004년 제천 '옥소종합예술제' 를 창설하여 5회까지 추진위원장을 담당했으며, 2005년 제천국제음악화제 초대부터 5회까지 집행위원을 맡았다. 2007년 8월 '제2회 중국 제백석 예술제' 한국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했으며 2016년에는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회 추진위원으로 활동했다.

국립청주박물관에 2차에 걸쳐 문화재 620점을 기증한 바 있으며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불교문화재 5점을 기증했고 제천역사박물관에 문화재 600여 점을 기증했다.

저서로는 수필집 〈준 것은 남고 가진 것은 없어진다〉, 2016년 〈합장인생 -김연호 제천 40년, 불교 40년〉 등 다수를 출간했다.

주요 불교활동은 대학생불교연합회에서 4년간 활동했으며 제천 불교청년회, 불교학생회, 거사림회, 재가불교 단체 '우리는 선우' 를 창립 지도했다.

1991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으며 제5회 제천시 문화상, 제7회 사단법인 불이회 불이상 , 제2회 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의 대원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제12회 충북도민대상과 제1회 대불련동문 대상을 수상 한바 있다.



술술 읽으며 깨쳐 가는 금강경
하도겸 외 8인 지음
운주사 펴냄/1만 6천원

금강경 번역 자체가 곧 해설서 역할
나마스떼코리아 회원 공부한 결과물

세존과 수보리장자 대화 현대적 해설

이 책은 단순한 번역서가 아니라 당시 세존과 수보리장자의 대화를 현대적으로 살린 해설서이다. 기존의 해설서들은 원문 번역을 읽고, 다시 어렵고 심오한 개념이나 경문에 대한 해설을 읽어야 하는 번잡함이 있었다. 금강경을 이해하려고 해설서를 보는데, 다시 그 해설까지 공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번역과 해설을 두 가지로 나누지 않았다. 번역 경문을 현대 우리 한글로 매끄럽고 편하게 해석해서 번역 자체가 그대로 해설서 역할을 한다. 이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 새롭게 해설번역서를 낸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목이 '술술 읽으며 깨쳐 가는 금강경' 이다.

불자와 이웃 종교인이 함께 만들어

이 책은 나마스떼코리아의 회원들이 함께 모여 공부한 결과물을 엮은 것이다. 나마스떼코리아는 주로 히말라야문화권에 관심을 가지고 교류와 지원을 하는 NGO로, 대부분 기부금의 30% 이하만 현지에 도달하는 것을 보고 80% 이상을 목적 사업에 쓰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회원들은 매주 금강경을 읽으며 의미를 나누고 토론을 하였는데, 이 책은 이렇게 탄생한 일종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라고 하겠다. 이 모임에는 불교인뿐만 아니라 천주교 등의 타 종교인들도 함께 참여했는데, 이 책이 이렇게 완성되기까지는 이들의 활약이 컸다.

우리말의 맛과 멋 살려 유려하게 번역

한자와 달리 한글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는 물론이고 인간 사이의 존경과 관계에 따른 미세한 차이를 담은 뉘앙스까지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와 문체들이 많다.

이 책은 오랜 시간 다양한 수준의 역주자들이 번역에 참여하면서 이런 우리말의 장점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었다. 금강경을 설할 당시의 분위기, 부처님의 의지, 부드러운 말씀의 아름다움을 포함하여 뉘앙스까지 살리고자 하였다. 이로서 우리는 당시 기원정사의 금강경 회상(법회)에서처럼,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깨치는 금강경으로 한 발 나아가게 된 것이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 찬탄하는 '노래쟁이'

불교명상가수 김무한 20년 만에 신곡



김무한 '심우도 송' 음반 표지

싱글음원 '심우도 송' 5월 10일 발매
노래 · 작곡 · 편곡 · 연주 · 프로듀싱
'심우도' 과정 그린 가사의 명상음악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우거진 수풀 헤치고 소를 찾아 나서니 물은 깊고 산 험하여 길을 더욱 멀어라. 고달픈 몸 마음 지쳐도 찾을 길은 없는데 나뭇가지에 앉은 매미 애처롭게 울고 있네 … ♬"

불교 명상가수 김무한이 신곡 '심우도 송'을 발표했다. 1996년 1집 정규 앨범 '마음으로 가는 길(12곡)'과 1999년 2집 정규앨범 '다시 부르는 찬불가(12곡)' 이후 20년만이다. 5월 3일 BBS '마가 스님의 그래도 괜찮아' 프로그램을 통해 첫 전파를 탄 신곡 음원은 5월 10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정식으로 발매됐다.

'심우도 송'은 약 7분짜리 싱글 음원으로 김무한이 노래 · 작곡 · 편곡 · 연주 · 프로듀싱했다. 불교의 '심우도(십우도)'를 노래로 옮긴 것으로, '심우(尋牛)'로 시작해 '입전수수(入廛垂手)'로 끝나는 심우도의 내용을 가사로 하고 있다. 대중가요처럼 듣기 편한 포크송 느낌과 잔잔한 명상음악의 느낌에 김무한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조화를 이룬다. 심우도가 본성 회복의 길을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하여 그린 10편의 그림이라면, 김무한의 심우도 송은 역시 불성을 찾아가는 길을 10편의 가사로 이어 부르는 한 편의 노래다. 심우도 한 편을 '노래'로 듣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심우도'를 음악(노래)으로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불교공부를 하면서 심우도가 공부하는 사람들에겐 정말 좋은 텍스트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대중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좋은 텍스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함께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는 사찰의 벽화나 경전 등에서만 접해왔던 심우도를 다른 방법(음악)을 통해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음악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몇몇 분들과 음악 작업을 했는데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그러다 얼마 전에 청력을 잃었고 천식까지 깊어져 호흡기 없이는 숨 쉬는 것도 어렵게 됐어요. 생각 끝에 지리산으로 들어가 죽을힘을 다해 병마와 싸웠어요. 어느 날부턴가 서서히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했어요. 몸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깊은 곳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다시 나를 찾은 나의 하루하루가 심우도였어요. 차일피일 미뤄왔던 노래를 완성하게 됐어요. 모든 게 시절인연인 것 같아요."

김무환의 심우도 송은 그렇게 세상으로 나오게 됐다. 김무한은 30년 넘게 부처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있는 불교명상 가수다. 그의 음악을 비롯한 김무한의 모든 언어 속에는 그 무엇보다 '불교'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는 1986년부터 2005년까지 파주, 문산, 홍천에 위치한 육군신병 교육대, 특공대, 수색대, 전차부대 등의 군법당과 서울, 영등포, 군산 교도소와 소년원 등을 돌며 불교 명상의 노래 순회공연을 해왔다. 1996년 가을에는 '김무한의 불음가요 축제'에서 최초로 불보살님들의 무트라(手印)를 명상 음악과 함께 발표 했다. 2006년부터는 7년간 임산모를 대상으로 태교음악회도 80회 이상 열었다. 2003년 가을에 시작한 인터넷(daum)팬 카페 모임, 김무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최로 김무한과 함께하는 명상의 노래여행 '마음 콘서트'는 11년째 계속 되고 있다.


30년 넘게 부처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있는 불교명상 가수 김무한 씨.

"섬세한 부처님 말씀을 노래로 / 덧없이 흐르는 게 세월이라 구름처럼 흘러흘러 나는 지금 어디메뇨 / 마음의 님을 찾아 / 얽히고 설키었던 인연타래 / 한올한올 풀다 겨워 돌아보니 / 머문 자리 무상초 홀로피어 …"

김무한은 정식으로 1집 음반을 내기 전인 1990년대 초 '무상초'라는 곡으로 처음 대중 앞에 섰다. 그 후 사찰공연에서 그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노랫말에 감화를 받은 스님의 소개로 교도소 공연을 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30년 넘게 교도소 공연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남부교도소 합창단을 대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며 화음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김무한은 교도소, 군법당, 지역 사찰 등 자신을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 찬불가, 상송, 팝송, 등 장르 구분 없이 노래로 대중과 함께하고 함께 위로받는다. 특히 그는 거의 매주말마다 전국의 군법당을 찾는다.

이렇듯 김무한의 삶에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다. 음악, 불교, 전법과 이타행이다. 그가 평생 해온 일이다. 그런 김무한의 키워드에는 모두 이유가 있다. 음악은 유년기 시절의 유일한 위로였던 파도소리에서 시작됐다. 그는 조금 남다른 유년기를 보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일찍 다른 세상으로 떠나보냈다. 일찍이 '홀로'였던 그의 곁에 있어준 것은 바닷가 고향의 파도소리였다. 그리고 그런 그의 삶은 당연히 일찍부터 힘겨웠다. 현실에서의 부침이 마음을 어렵게 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늘 외롭고 힘겨웠던 그에게 음악은 유일한 위로였다. 어릴 적 들었던 파도소리의 기억이 그를 노래하게 했다. 음악이 김무한에게 '쉴 수 있는 곳'이었다면 불교는 그에게 '걸어가야 할 길'이었다. 힘겨운 삶 속에서 우연히 만난 불법(佛法)은 힘겨움 속에서 품었던 많은 질문들의 '답'이었다. 그의 음악 속에 불교가 있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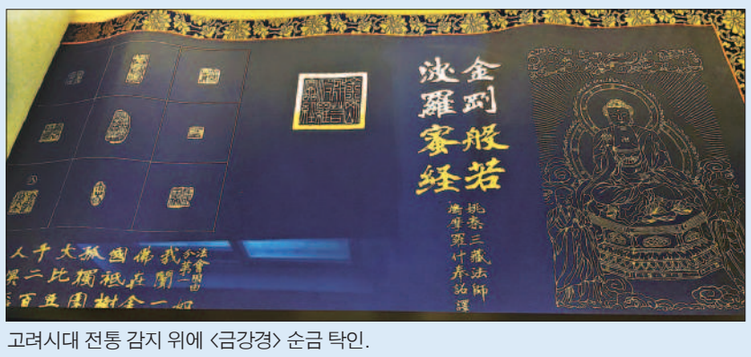
힘겨움 속에 있는 이가 힘겨운 이의 어려움을 알 수 있듯이 김무한은 자신의 힘겨운 삶 속에서도 힘겨운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았다. 김무한이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노래를 들고 대중을 찾아 불법을 전해야 했던 이유다.

"옛사람들이 만들어 준 발자취를 따라 제가 살아왔듯이 누군가를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률에 담아 노래하고 있는 저는 부처님을 사랑하는 노래쟁이입니다."

김무한은 지금 지리산에 산다. 그는 내일 또 산 아래 대중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의 노래가 오래 오래 들려오길 바란다.

전각으로 만나는 〈금강경〉

조성주 '붓다에 바치는 금강경 전각' 展



고려시대 전통 감지 위에 〈금강경〉 순금 탁인.

한국기네스북에 등재된 조성주 작가의 '전각 금강경'이 등재 25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된다. 조 작가의 '전각 금강경' 소장처인 이천 청정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1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한국미술관 2층에서 화해와 치유를 기원하는 '붓다에 바치는 금강경 전각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서예가이자 전각가인 조 작가의 '전각 금강경'은 1151개의 옥돌에 〈금강경〉 전문 5400자를 갑골문과 소전 등 다양한 전서 서풍으로 새긴 전각 작품으로 1997년에 20폭 병풍으로 완성됐다. 1986년 시작해 11년에 걸쳐 완성된 조 작가의 '전각 금강경'은 서예계는 물론 불교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그해 한국기네스북에 등재됐다. 그리고 1997년 예술의전당에서 전시된 후 2020년 6월 28일 이천 청정사에 기증됐다.

이번 전시에는 인장에 새긴 20폭 병풍과 1151개의 전각석, 고려시대 전통 감지 위에 순금으로 새긴 금강경 탁인(拓印, 40m), 순금 사경 작품(40m)이 전시

서울 한국미술관 5월12일부터 25일까지
한국기네스북 등재 25주년 기획 특별전

된다. 40m짜리 탁인은 조 작가도 전체를 펼쳐보지 못한 대형 작품으로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서예가라면 한 번쯤 꼭 써보고 싶어 하는 〈금강경〉은 반야지혜의 법문을 설한 경전으로 현장(玄奘)이 번역한 〈대반야경〉 600권 가운데 577권에 들어있는 경이다. 석존이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서 수보리 존자 등을 위하여 인식의 세계 등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무자성 · 공이며 무아임을 설한 경으로, 대승경전의 진수가 담긴 경전이다. 선종에서는 육조혜능이 이 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이라는 구절에서 대오했다고 하여 소의경전으로 중요시해왔다.

전시를 마련한 청정사 주지 현중 스님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중에게 금강세계의 인연으로 희망을 주고 금생의 소원을 이루고자 전시를 준비했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전시 기간 동안에는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마가 스님, 활안 스님, 동봉 스님 등 선지식의 법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02)573-7601. 박재완 기자

동국대,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 신설

2021년도 2학기 첫 신입생 모집
대학원 과정… 불교학술원 주관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취득 가능
불교·사회 경영전문가 양성 기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전경. 동국대는 불교학술원의 주관으로 일반대학원 내에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를 신설 · 운영한다.

동국대(총장 윤성이)가 불교 · 사회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 과정을 신설한다.

동국대는 "일반대학원에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Department of Buddhist Business)를 신설하고 2021년도 2학기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5월 4일 밝혔다.

일반대학원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불교와 사회의 경영전문가를 양성하는 정규 석 · 박사 학위 과정으로, 주관 기관은 불교학술원이다.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는 불교의 사상과 현대의 경영기법을 통섭하여 불교교단과 사회조직에 적합한 경영의 원리와 기술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문분과다.

불교학술원은 "보편 철학인 불교학을 토대로 경영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등 학문 간 연구를 융합함으로써 불교 교단 내적으로는 조직관리, 재무관리, 인사관리와 함께 현실 포교에 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종단과 사찰의 경영자를 양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불교교단 외적으로는 경영 일선에 있는 기업체나 비영리 조직에 불교적 소양을 지닌 사회적 리더를 배출하자는 취지가 담겼다"라고 설명했다.

학과 신설에 적극 앞장선 불교학술원장 불영 자광 스님은 "부처님께서 '정법에 따라 경영하고 소통하며 열심히 재산을 모으되 절대로 그것에 집착하지는 말라' 고 하셨다"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세계 변화와 중생제도에 환원할 것을 당부하셨던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현대불교의 경영지도자, 현대경영의 불교지도자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교 재정 전문가, 사회와 불교의 비즈니스 지도자를 양성하고 현대사회에 필요한 종단과 사찰의 경영 방안, 인간 중심의 조직경영원리를 연구할 것"이라며 "불교기반의 경영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트렌드를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관기관인 불교학술원은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를 불교교단에서 필요시되는 사업 능력 제고와 일반사회가 요청하는 인간 중심의 기업경영철학을 아우르는 특화된 교과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공통 토대 교과를 비롯하여 불교학 전문 교과, 경영학 전문 교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전문 교과로 구성한 학제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불교학의 인간불교 사상, 경영학의 조직 · 재무 · 인사관리 능력,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의 화쟁적 소통이 융화된 교과목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불교학술원은 "국내 대학에서 최초로 개설된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는 불교종단의 교역직 스님, 불자 경영인 및 불교활동가, 불교최고위과정과 사찰경영전문CEO과정 수료생, 불교융합 분야 학문후속세대 등 불교계 인재뿐 아니라 NGO 및 NPO 활동가, 방송 · 언론인, 출판인이나 불교 외부의 사회 리더들에게도 학문적 만족과 사회적 실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반전형 모집 기간은 오는 5월 10일부터 18일까지며, 특별전형은 7월 5일부터 16일까지이다. 원서는 인터넷(www.uwayapply.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계종 승려(구족계 수지자)는 수업료 65%가 감면되는 건학이념구현장학 혜택을 받는다.

동국대 전자불전硏, 예산 법륜사와 MOU

법륜사 소장 사진 DB화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진명, 이하 전자불전연구소)와 예산 법륜사(주지 보명)이 근현대 불교문화 기록사진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예산 법륜사와 전자불전연구소는 4월 19일 법륜사 경내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법륜사 주지 보명 스님과 황산준 전자불전연구소 교수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전자불전연구소는 법륜사 주지이자 충남 무형문화재 제40호 내포영산대재 보유자 보명 스님이 소장한 근현대 불교문화관련 기록사진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황상준 교수의 사전 조사에 의하여 진행된 사업은 업무협약에 따라 만공(滿空, 1871~1946) 스님과 불연이 깊은 법륜사 창건주 법인(法印, 1903~1986) 스님의 인화사진 자료와 현 주지 보명 스님이 소장한 불교의식 및 내포영산대재 관련 사진 자료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된다. 주요 사진자료는 1930년대 만공 스님 관련 인화사진과 1930년대부터 1950년대의 불교행사 관련 사진자료다.

황상준 교수는 "수덕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당시 조계종 소속 스님들이 법륜사에서 집전한 불교의식 사진을 비롯해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암산 마애불 백의관세음보살상의 옛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 수암산 굴바위절 법륜사의 굴법당 사진 등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토대연구팀은 한국불교 역사와 문화, 사상과 종교를 투영하고 있는 사진을 수집 및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다양한 키워드를 통한 검색 가능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예산 법륜사 주지 보명 스님(사진 왼쪽)과 황상준 전자불전연구소 교수(사진 오른쪽)가 4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제4회 성운학술상 우수상 서정원·강지언 박사 수상

한국불교 염불신앙에 대한 학술 연구 장려를 위해 제정된 제4회 성운학술상 우수상 수상자로 서정원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와 강지언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이 각각 수상했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고영섭)은 제4회 성운학술상 선정결과를 5월 4일 발표했다. 우수상 수상자로는 서정원 박사와 강지언 박사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에는 김성순 동국대 HK연구교수 ·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 경오 스님 · 백도수 능인대학원대학 불교학과 교수 · 황상준 동국대 불교문화콘텐츠전자불전연구소 연구교수 · 명계환 동국대 불교학과 외래교수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소정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며, 시상식은 5월 14일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동남아불교 · 사찰 전적 등 주제 '다채'

불교학계, 춘계학술대회 개최 잇달아

불교학계가 봄을 맞아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은 5월 15일 '동남아 지역의 대승불교 양상과 해양 실크로드' 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줌 방식으로 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심재관 상지대 교수가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승불교 연구 동향' 을, 황순일 동국대 교수가 '고대 태국 드와라와띠 문화와 동남아 대승불교' 를, 계미향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연구원이 '구법승 통해 본 동남아 대승불교' 등을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안환기(서울불교대), 한상희(경북대), 김한상(한국외대), 옹지인(부산외대) 등이 참여한다.

주제 발표 전에는 딴툿우 동국대 글로벌경제통상학부 교수가 '미얀마 민주화 항쟁의 전개 양상과 향후 전망' 에 대해 특별강연을 하며, 학회 차원의 미얀마 민주화 운동지지 선언문도 발표될 예정이다.

사찰 전래 전적들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결과를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강진 백련사(주지 보각)은 '백련사 전래 전적에 대한 서지 및 사상적 연구' 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남권희 경북대 명예교수와 안휘섭 경북대 연구원이 〈천태삼대부보주〉와 〈석가여래행적송〉판본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를, 석혜영 경북대 BK21 연구원이 '백련사 전래의 진정국사 〈호산록〉에 대한 연구' 를, 서강선 부산대 교수가 〈만덕사지〉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를 발표한다.

박용진 국민대 교수는 '고려후기 백련사와 법화삼매참 불서에 관한 연구' 를 박장승 · 최기척 경북대 연구원은 '백련사 주석 승려들의 찬술문헌에 대한 연구' 를, 권오덕 한국국학진흥원 박사는 '강진 백련사 관련 시문(詩文) 분석' 을 전재동 한국전적문화재연구소 박사는 '조선 후기 영남문인들의 백련사단 결성과 활동' 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백련사 주지 보각 스님은 "백련사가 간직한 과거 1000년의 역사와 사상, 전승 문화를 미래의 1000년으로 이끌어 나갈 토대를 마련하고자 준비한 자리"라면서 "만덕산 백련사 관련 문헌들에 대한 서지학 및 사상적 전승 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고견과 제언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국불교학회(회장 고영섭)은 '한국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2-구산선문 톺아보기' 를 주제로 5월 14일 동국대 동국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는 5월 15일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비대면 명상 및 상담 실천 방법' 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줌 바식으로 진행한다.

신성민 기자

불교계 자살인식 개선방안 논의

동국대, 7일 자살인식 개선 세미나 개최

동국대(총장 윤성이)가 자살인식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국대 생사문화산업연구소(소장 신성현)는 5월 7일 교내 덕암세미나실에서 '불교의 자살인식 개선 방안 고찰과 실천방안'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성현 동국대 생사문화산업연구소장의 '불교계 자살인식 개선방안 고찰' 을 시작으로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이 '불교계 자살예방 사업 방안' 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자살유가족과 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위로와 회복을 위한 종교예식 시행, 차명상 자조모임 개최, 템플스테이 등 생명지킴이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그동안 종교적 교리로 인해 우리 사회의 자살문제에 무관심하던 종교계는 생명을 중시하는 28개 시민단체로 결성된 생명운동연대(상임대표 조성철)와 힘을 합쳐 3월 25일을 '생명존중의 날'로 선포한 바 있다. 이어 7대 종단은 한국종교인연대(상임대표 김대선)를 중심으로 각 종교별로 '자살은 사회적 책임, 우리 함께 나서자' 는 기치 하에 자살예방 실천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종교계, 학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릴레이 생명운동포럼은 동국대에서 개최되는 이번 불교계 세미나를 시작으로 종교계별로 연속해서 10회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각 세미나 장소에서는 지난 '생명존중의 날' 부터 시작된 30,000명 생명존중 서약식도 SNS 서약과 함께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생명운동연대 관계자는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은 생명존중에 대한 종교인들의 사명을 다하는 매우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며 "자살이 줄어드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신성민 기자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18

▶ 19회 예고
아쇼까는 탁실라에 도착해 부왕인 수시마를 만난다. 수시마를 농락해온 망갈라로이 형제를 처단하겠다고 말한다. 결국 아쇼까는 그들을 붙잡아 극형에 처한다. 그러자 반란의 조짐도 사라지고 탁실라는 안정을 되찾는다.



아쇼까, 아들 꾸날라를 보다

친위대장은 예전에 장수들이 사용하던 초라한 숙소가 아쇼까의 별궁으로 바뀐 것을 보고 놀랐다. 결혼한 왕자들의 별궁은 크고 호화로웠던 것이다. 아쇼까 별궁은 초라하다 못해 동정심이 들 정도였다. 결혼한 왕자들이 거처하는 별궁도 빈두사라의 마음에 따라 정해졌다. 친위대장은 아쇼까 별궁으로 들기 전에 잠시 호흡을 골랐다. 그때 시중드는 궁녀가 나타나 물었다. 처음 보는 나이 든 궁녀였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왕자님을 뵈러 왔네. 대왕님의 명을 가지고 왔네."

궁녀가 '대왕의 명' 이란 소리를 듣고는 별궁으로 뛰어가듯 들어갔다. 아쇼까 부인 빠드마바띠가 뒤뚱뒤뚱 불편한 걸음걸이로 나왔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산달이 가까운 듯 배가 불룩했다.

"장군님, 방에서 기다리시지요."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녀는 친위대장과는 구면이었다. 빠드마바띠가 결혼하기 위해 고향을 떠날 때였다. 코끼리를 타고 빠딸리뿌뜨라성으로 들어오는 동안 친위대장이 1요자나 떨어진 들판에서부터 군사를 풀어 호위해주었던 것이다.

"무슨 일입니까?"

"왕자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친위대장은 그녀에게 차마 말을 못했다. 충격받으면 유산할 수도 있을 터였다. 잠시 후 아쇼까가 왔을 때도 그녀를 동석시키지 않고 대왕의 명을 전했다.

"왕자님, 놀라지 마십시오. 대왕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탁실라 수시마 부왕님께서 그곳 대신들의 농간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대왕님께 수시마 부왕님을 도울 분은 아쇼까 왕자님뿐이라고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농간을 부리고 있습니까?"

"수시마 부왕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거짓 보고를 하여 성민이나 목동의 재산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머잖아 소요가 일어날 것이 뻔합니다."

"탁실라가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친위대장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방문에 그림자가 스쳤다. 친위대장은 방문을 열어젖히며 두리번거렸다. 아쇼까가 말했다.

"이곳은 나의 별궁이오. 나의 동태를 살필 사람은 아무도 없소. 방금 문에 어린 그림자는 궁녀였을 것이오."

친위대장이 다시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왕자님께서 저를 탓하지 않으시니 다행입니다."

"대왕님의 명을 전달하려고 왔는데 그것이 무슨 허물이 되겠소."

"그러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아쇼까가 친위대장의 팔을 잡았다. 아쇼까가 어정쩡하게 의자에 앉은 그에게 말했다.

"탁실라로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왕자비가 임신 중입니다. 곧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 이름도 꾸날라라고 지어놓았습니다. 꾸날라, 아이가 사내일 것 같아서 그렇게 지어놓았습니다."

"왕자님이시여, 새의 눈처럼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축복을 해주니 감사합니다. 내일 저는 대왕님을 찾아뵙고 떠나는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친위대장이 나간 뒤 빠드마바띠가 아쇼까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아쇼까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화제를 돌렸다.

"부인, 오늘 타고 달린 말은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고 하오."

"그 말을 타시면 하루 이틀 사이에 탁실라에 도착하겠군요."

"탁실라라니 무슨 말이오?"

"대장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숨기지 마세요."

아쇼까는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느다란 손이 아쇼까의 큰 손에 힘없이 잡혔다. 허약한 체격에다 병치레를 하여 얼굴은 백짓장처럼 희었다. 손가락뿐만 아니라 다리도 가늘어 불룩한 배를 지탱하기도 힘들어 보였다.

"걱정하지 말아요. 꾸날라를 낳을 때까지는 떠나지 않을 거요. 옆에서 지켜줄 테니 안심해도 좋아요."

"당신의 아기 꾸날라를 위해서 그래 주세요."

아쇼까는 그녀를 껴안았다. 산달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녀의 체중은 가벼웠다. 아쇼까는 그녀를 침실 침대 위로 눕혔다. 그런 뒤 궁녀를 불러 말했다.

"갈수록 몸이 야위어 가는 것 같은데 오늘은 무엇을 먹었느냐?"

"요즘에는 아무 것도 드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시면 토해버립니다."

"어부들이 강가강에서 잡아온 물고기 스프는 어찌 됐느냐?"

"음식은 드시지 못하지만 물고기 스프로 기운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강가강에 나가 고기를 구해 올 터이니 그리 알라."

"예, 왕자님."

다음날. 아쇼까는 이른 아침에 빈두사라가 정사를 보는 궁으로 들어갔다. 빈두사라가 반색을 하며 아쇼까를 맞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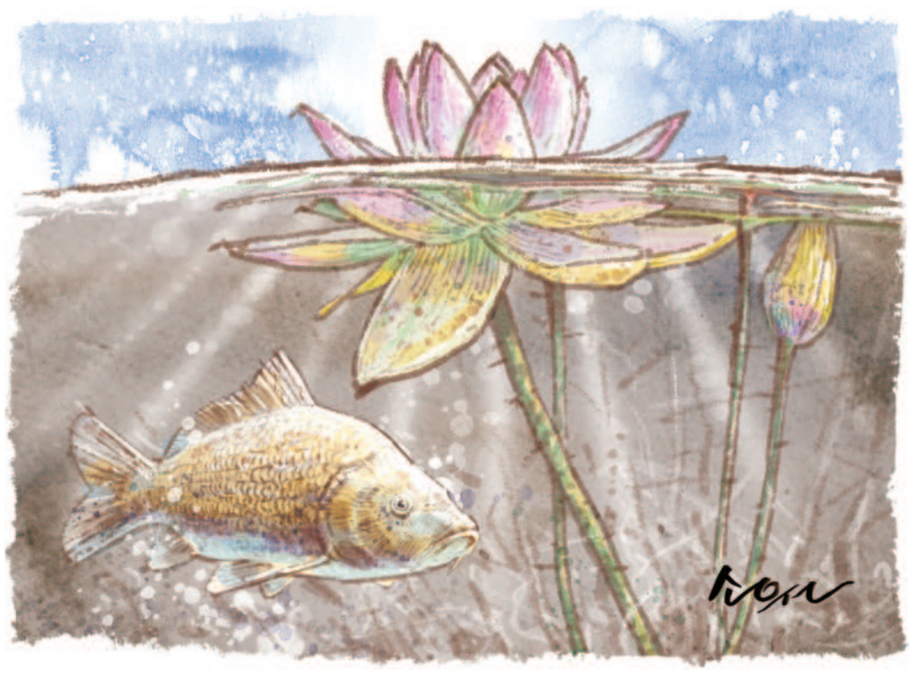
"수시마 형을 도와야지?"

"돕는 것은 어렵지 않사옵니다. 다만."

"다만 무슨 일이 있느냐?"

"빠드마바띠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사옵니다. 산달이 가까워지고 있사옵니다."

"정말이냐?"



"그렇사옵니다. 아기 이름까지 지어놓았사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꾸날라이옵니다."

"꾸날라, 나는 어쩐지 슬픈 느낌이 드는구나."

"빠드마바띠가 몸이 허약하여 아기를 잘 낳을지 걱정되옵니다."

"좋다. 정사를 돌보는 데는 공사가 분명해야 하느니라. 그러니 아기를 낳을 때까지만 있다가 탁실라로 떠나거라."

"명심하겠사옵니다."

아쇼까는 친위대장을 찾아가 빈두사라에게 받은 지시를 전했다. 그러자 그가 감탄했다.

"대왕님의 지혜로운 판단에 놀랄 뿐입니다."

"저는 꾸날라의 탄생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기쁘지만 병약한 아내를 돌볼 수 있어 더 기쁩니다."

"그래서 대왕님의 지혜로운 판단에 놀라는 것입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십시오."

"아내는 물고기 스프만 겨우 먹고 있습니다. 강가강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어부출신 군사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위대장은 흔쾌하게 말했다.

"소장은 빠드마바띠님이 이곳에 오실 때 호위를 잘한 공으로 특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부탁인들 듣지 않겠습니까?"

아쇼까는 강가강으로 나가 어부출신 군사들이 탄 배를 탔다. 그물을 던지는 군사들의 솜씨는 능숙했다. 강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물에는 물고기들이 가득했다. 비늘을 번쩍거리며 팔딱거리는 물고기들을 보기만 해도 빠드마바띠가 곧 기운을 낼 것만 같았다.

아쇼까는 별궁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빈두사라의 명을 전했다. 밤새 불안해하던 빠드마바띠는 안심했다. 핼쑥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미소를 짓자 그의 눈이 더욱 크게 보였다. 비록 꾸날라를 잉태하여 더욱 야위었지만 언제나 눈만큼은 호수처럼 크고 아름다웠다. 긴 속눈썹은 호수에 어린 풀 같았다. 아쇼까가 빠드마바띠와 결혼을 결심한 것도 그녀의 큰 눈에 반해서였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됐소. 대왕께서 당신이 꾸날라를 낳을 때까지 이곳에 있는 것을 허락하시었소. 나는 꾸날라를 보고 탁실라로 떠날 것이오."

"행운의 여신 락슈미가 미소를 지었군요."

"당신이 좋아하는 맛있는 물고기 스프를 더 만들도록 궁녀들에게 지시하겠소. 방금 강가강에서 돌아왔소."

"당신이 고기를 잡았다는 말이군요."

"어부출신 군사를 데리고 나갔소."

빠드마바띠가 행복하게 웃었다. 너무 마른 탓에 웃는 모습이 찡그리는 것처럼 보여 아쇼까는 마음이 아팠다. 문득 아쇼까는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는 꾸날라를 갖지 말았어야지 하고 후회했다. 그러나 후회는 짧은 순간뿐이었다. 아기를 보고 싶은 아쇼까의 마음은 그 어떤 성취보다 간절했다. 비록 핏덩이지만 꾸날라를 보고 탁실라로 떠난다면 더 이상 원이 없을 것 같았다.

마침내 빠드마바띠가 꾸날라를 출산하는 날이었다. 산파가 오고 궁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아쇼까도 별궁 밖에서 한 나절이나 서성거렸다. 빈두사라의 명을 받아 탁실라로 떠날 군사들의 구령소리가 별궁까지 들려왔다. 궁녀가 아쇼까에게 달려와 말했다.

"왕자님,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째서 늦어지는 것이냐?"

"진통을 이기지 못하시고 자꾸 혼절하시기 때문입니다."

"허약한 몸으로 아기를 낳으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그러나 그때 아기 울음소리가 별궁 밖까지 들렸다. 아쇼까는 별궁으로 뛰어 들어갔다. 빠드마바띠는 혼절한 듯 축 처져 있었다. 산파가 크게 우는 꾸날라를 아쇼까에게 보여주었다. 꾸날라의 큰 눈이 아쇼까를 사로잡았다. 빠드마바띠를 꼭 빼닮은 눈이었다. 꾸날라의 눈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왕자님, 안아보십시오."

"모두들 수고했소."

아쇼까는 자신을 바라보는 꾸날라의 눈을 본 순간 콧잔등이 찡했다. 자신의 아기를 자신이 안고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행복했다. 그제야 빠드마바띠가 꼬무락거리며 깨어나 아쇼까를 쳐다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아쇼까가 꾸날라를 궁녀에게 건네주고 말했다.

"고생했소. 꾸날라는 당신을 닮았소."

"당신을 닮았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당신은 뛰어난 분이니까."

"나는 이제 탁실라로 떠나야 하오. 그러나 곧 돌아올 것이니 기다려요."

"기다릴게요. 꾸날라가 당신을 찾을 거예요."

"당신, 건강 잘 챙기시오. 다시 만나요."

빠드마바띠가 또 눈물을 흘렸다. 아쇼까는 군사들의 구령소리를 들으며 별궁을 나왔다. 다르마가 손자인 꾸날라를 보러 왔다. 다르마가 말했다.

"손자를 보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너를 떠나보내는 것은 슬프구나."

"어머니, 대왕님의 명이니 떠나야 합니다."

빈두사라의 명을 어기면 왕자라고 해도 가차없었다. 아쇼까는 자신이 길들였던 말에 올라탔다. 기수가 앞에서 천천히 달렸다. 마우리아왕국의 깃발이 펄럭였다. 아쇼까는 기마군사에게 크게 소리쳤다.

"출발하라!"

빠딸리뿌뜨라 성을 빠져나가는 기마군사의 말들이 흙먼지를 일으켰다. 탁실라까지 최대한 빠르게 달리기 위해 기마군사를 편성했던 것이다. 아쇼까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망갈라로이 형제를 처단하고 돌아올 생각을 했다. 꾸날라가 보고 싶고 빠드마바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빠드마바띠는 산후병을 앓다가 아쇼까가 인더스강을 건너기 전에 죽었다. 아쇼까가 빠딸리뿌뜨라를 떠난 지 20여 일 만이었다. 다르마가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다. 〈계속〉

박희승의 禪, 세상을 만나다 ⑨ 〈반야심경〉과 선 ㊦



▶ 한줄 요약
'최고' '최하' 여읜 중도의 삶을 살자

'최중'으로 사는 금강경 지혜

마하 반야, 큰 지혜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건너 영원한 행복을 누린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반야심경〉은 큰 지혜의 핵심을 말한다.

중도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부처님이 깨친 중도를 〈반야심경〉에서는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다(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고 말한다. 참 어려운 말이다. 많은 불자들이 이 구절에서 막힌다. 물질과 공이 다르지 않다. 물질이 어떻게 공인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불교의 지혜에 눈을 뜨니 어렵더라도 이해할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

물질(色)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일체 만물을 말한다. 공(空)은 부처님이 깨친 중도를 말하는데 일체 만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님'을 뜻한다. 흙, 물, 산, 바다 등 일체 물질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인연하여 존재한다. 이것을 연기(緣起)라 하고, 세상 만물이 실체가 없이 인연에 따라 존재하니 '나'라고 할 것이 없어 '무아(無我)'라 한다. 이 우주 만물 중에 고정 불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 지구와 태양계를 밝게 비추는 저 거대한 태양도 시시각각으로 불타고 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초전법륜에서 당신의 깨달음을 중도라 선언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이 중도법문을 다섯 수행자가 알아듣지 못하자 팔정도, 사성제, 연기, 무아 등 다양하게 표현하셨다. 이것을 눈높이에 맞춘 설법이라 하여 대기 설법 또는 방편 설법이라 한다.

부처님 열반 이후 상좌부승가에서는 중도보다 팔정도와 사성제, 무아법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견해가 편향되어 갔고 대중의 고통을 외면했다.

수백 년이 지나 대승운동을 일으킨 대중부승가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를 복원시키고 연기, 무아를 '공(空)'이라 표현한다. 상좌부 승가에서 불교의 근본 중도를 팔정도, 사성제, 무아라는 개념으로만 공부하고 설법하여 법이 있다는 견해에 집착하자 이를 비판하면서 법조차 공(空)하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처님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영원히 해탈한 깨달음은 중도가 근본이고, 그 내용은 팔정도, 사성제, 연기, 무아, 공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이것은 모두 하나다. 성철 스님은 이것을 동체이명(同體異名), 같은 몸으로 이름이 다를 뿐이라 하였다. 이 시대에 불자들이 불교를 공부하여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대자유를 누리려면 불교의 중도, 팔정도, 사성제, 연기, 무아, 무상, 공이 이름은 다르나 하나라는 이치를 바르게 아는 정견을 세워야 한다. 불교의 정견이 서게 되면 세상과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이 정립되어 비로소 깨달음의 지혜도 나오고 믿음과 발심으로 정진하는 힘이 저절로 난다.

불교 연기 · 공 세계관과 힉스의 발견

부처님이 깨친 중도, 연기, 무아, 공의 세계관은 현대 과학의 연구 성과와 비슷하다. 유럽입자물리학연구소(CERN)는 스위스 지하에 거대한 터널을 만들어 중성자와 양성자를 충돌시키는 실험을 한 결과 '힉스(Higgs)'라는 물질을 발견했고 2012년 발표했다.

이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물질에 대한 최고의 연구 성과다. 우주 만물에 질량을 부여하는 최소 입자의 존재를 주장한 영국 물리학자 피터 힉스(1929~)는 이 연구로 2013년 노벨상을 받았다.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우주의 물질을 이루는 최소 단위인 힉스는 '신의 입자(particle)'라고도 하는데, 서양에서 신이 창조한 우주를 이루는 기초물질로 보기 때문이다(교황청에서는 힉스를 '신의 입자'로 부르는 것에 반대하였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힉스는 물질이면서 물질이 아닌 '반물질(半物質)'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불교의 중도(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님)와 연기, 공의 개념과도 비슷하다.

연기 사상과 과학적 입증
'나'란 실체, 무상 드러나
물질 공함을 보면 지혜가
보시에 개인 · 사회 행복

현대 과학은 우주 만물을 이루는 기본 요소가 힉스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실체가 없으며 여러 최소 입자의 인연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 연기, 무아, 공의 세계관과 유사하다. 현대 과학의 연구도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진리는 현대 과학의 연구와도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연구가 진전될수록 그 진실성이 더 증명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반야심경〉으로 돌아와 "물질이 공이고, 공이 물질이다"는 불교의 진리는 힉스로도 설명할 수 있다. 나와 우주 만물은 여러 물질이 인연으로 연기로 존재하니 고정된 실체가 없어 무상(無相)이고 무아(無我)이며, 그것을 공(空)이라 한다. 나라고 할 실체가 없는 것이다.

무아 · 공이라고 허무주의는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교를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불교의 공을 허무주의로 보는 견해이다. 중국의 근세 지식인으로 유명한 임어당 같은 분도 불교의 공을 중도로 보지 못하고 허무주의로 오해하였다.

불자들 중에서도 공을 허무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법사나 참선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을 허무(虛無)로 보고 설법하니 불자들의 가치관에 혼란이 적지 않다. '비워라', '놓아라', '이것 밖에 없다', '뭘 그리 애쓰는가?' 심지어는 '본래부처인데 화두를 왜 하는가?', '화두 참선은 쓸데없는 짓이다', '시끄럽고 복잡한 것을 떠나 고요한 그 자리가 삼매고 선정이다' 등등의 말을 한다. 불교의 공을 중도로 보지 않고, '있다-없다'의 없다는 무(無)에 떨어진 안목과 해설은 중도 공이 아니고 허무 공이다. 그런 견해를 부처님은 중도 정견이 아닌 외도(外道)라 하셨다.

중도 공은 '있다-없다', '시끄러움-고요함', '소유-무소유' 등 양변에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는 자유자재함을 말한다. 비우고 내려놓으면 지혜가 나와서 비움과 내려놓음에도 머물지 않아야 한다. 시끄럽고 번잡스러운 것을 싫어하고 떠나 고요하고 편안한 것이 도, 공, 삼매라 하면 양변에 떨어진 외도가 된다. 중도 공은 시끄러움도 피하지 않고 고요함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시끄럽고 번잡한 곳에서도 고요와 평화가 함께 해야 하고, 고요하고 편안한 곳에서도 성성하고 활발발한 지혜가 나와야 한다. 중도 공은 자유자재함이지 허무주의가 아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위치한 황룡원 중도타워 전경.

물질, 공으로 보면 지혜가 세상 밝힌다

'물질이 공'이라 정견하면 물질에 집착하지도 않고 무에도 머물지 않는 큰 지혜가 나온다. 코로나 대유행과 지구 기후 이상으로 문명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에도 물질에 집착하여 탐욕스러운 투기를 일삼는 이들은 물질이 공하다는 지혜를 밝혀 '공수레 공수거'라는 말을 떠올려 보기를 권한다.

그렇다고 물질을 버리고 무소유로 살라는 말이 아니다. 물질이 공하다는 큰 지혜를 밝히면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사업하고 일하며 그렇게 모은 물질을 세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쓸 수가 있다.

부처님 당시에 큰 부자였던 수닷타 장자가 바로 그런 분이다. 수닷타 장자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불자가 되어 자기 재산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 데 크게 도왔다. 〈금강경〉을 설한 기원정사(제따와나)가 바로 수닷타 장자와 기타 태자가 공동으로 시주한 사찰이다. 우리는 〈금강경〉을 읽을 때마다 수닷타 장자의 시주 공덕을 떠올린다. 현대로 와서 애플의 창업자로 참선 수행자였던 스티브 잡스도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드는 일이라는 마인드로 사업을 하여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이루었다. 우리나라에선 동국제강그룹의 창업자 대원 장경호 거사 같은 분이 있다. 대원 거사는 참선을 하다가 큰 체험을 하고는 28세에 '사업보국'의 원력을 세우고 철강회사를 창업하여 큰 성공을 이루고 남산에 대원정사를 세우고 시민선원을 열었다. 말년에는 사재 30억 원(현재 시가 3천억 원 추산)을 불교 진흥을 위해 보시해 (재)대한불교진흥원이 설립됐고, 불교방송을 세우는 기반이 되었다.

또 대원 거사의 다섯 째 아들인 장상건 동국산업 회장도 부친의 불사 원력을 이어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사재를 기부하여 신라 황룡사 구층목탑을 본떠 황룡원 중도타워를 세워 경주에 새로운 상징을 만들고 불교의 큰 지혜를 밝히고 있다.

1980~90년대 분당 일산 신도시 아파트 건설로 크게 성공한 건영그룹의 엄상호 회장도 서른 개나 되는 건영아파트 단지마다 포교당과 유치원을 건축하여 불교 전법에 기여했고, 무소유의 법정스님에게 1000억 원대의 대원각을 보시해 길상사 건립을 이끈 길상화 보살도 보시하여 세상을 밝히는 큰일을 하였다.

이와 같이 물질이 공함을 보면 세상을 밝히는 지혜가 나온다. 물질이 공하다는 이치를 생활에서 행하면 무궁무진한 지혜가 나온다. 〈육조단경〉의 애독자인 허구연 프로야구 해설가는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경기에서 힘을 빼고"할 것을 권한다. 야구뿐 아니라 모든 운동도 몸에 힘이 들어가면 긴장되고 경직되어 본래 실력이 나오지 못한다. 몸에 힘을 빼고 평상심으로 연습한대로 하는 것이 제 실력이 나게 한다.

물질이 공함을 보는 큰 지혜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한다. 내가 가진 재산이나 지위,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나와 남이 모두 잘 되게 한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74세 윤여정 배우의 언행이 세상에 화제가 되었다. 종교가 없다는 윤 배우의 말은 마치 고승의 법문 같았다. 그중 압권이 이 말이다.

"우리 너무 최고, 1등이 되려고 그러지 맙시다. 그냥 다 같이 '최중'으로 살면 안돼요?"

〈불교인재원 교수〉

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⑨ 태자의 부인 맞이 겨루기



▶ 한줄요약
이상형 '구이'를 배필로 맞이하기 위해 열린 대회에서 싯달타 태자는 압도적인 기량으로 석가족 왕족과 귀족들을 누르고 승리했다. 그리고 구이를 아내로 맞이했다.

싯달타 태자, 압도적 기량 펼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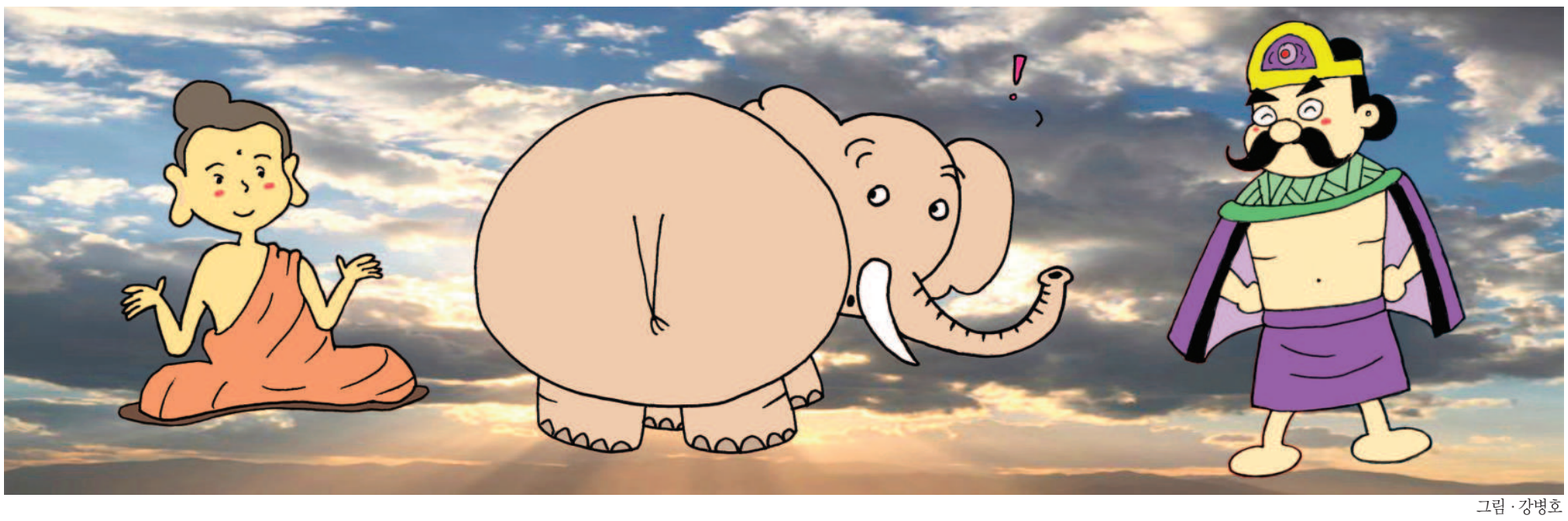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석보상절〉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꼽으라면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 묘사되는 겨루기 시합을 하는 대결 구도이다. 권6에서 '사리불'이 외도 '노도차'를 불교로 귀의시키는 대결이 그렇고 권3은 지금 석가 왕족과 귀족들의 대결이 그렇다. 그것도 꽃다운 청춘남녀의 '평생 배우자 구하기'라는 어찌 보면 인생 일기일회를 맞이하는 순간이다. 빼어난 석가족 청년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는 모습들을 그 시대 그들의 이상형 '구이'의 관점에서 관전해 보자.

코끼리 던지기 시합과 씨름

조달이 말하였다.

"태자가 총명하여 글은 잘 하거니와 힘이야 어찌 우리를 이기리오."

하고 코끼리가 문에 서 있거늘 조달은 그 코끼리의 머리를 잡아 땅에 굴러 던지고, 난타는 코끼리를 길가에 올려 찼다. 태자는 코끼리를 들어 성너머로 내던지고 따라 날아가서 받아 아프지 않게 내려 놓으셨다.

조달이와 난타가 서로 씨름하니 둘의 힘이 같거늘 태자가 둘을 잡아 함께 굴려 넘어뜨렸다.

이 내용은 한문본 저본의 도움이 필요하다. 〈석가씨보(集藝歷試迹第四經)〉에는 한 코끼리가 문에 있자 조달은 머리를 잡아 땅에 내치고 난타는 발로 차서 길 곁에다 밀어뜨려 놓았는데, 태자는 손으로 성 밖으로 던졌다가 다시 잡아 땅에 내려놓아 고통이 없게 하였다(有象當門調達搏頭蹙地難陁足挑路側 太子手擲城外還接著地 不令苦痛)고 한다. 한편 '석가보'는 조금 다른데 조달이 코끼리를 던져 죽었는데 난타가 길 옆으로 옮겼고 태자는 썩는 냄새가 나서 성 밖으로 던져 놓았다(調達右手牽象左手撲殺 難陁出城門卽牽移路側 菩薩出城曰是象身大臭熏城內卽右掌接擿置城外)고 하였다. 〈석보상절〉은 두 저본을 취합해 이와 같은 본문으로 재창작한 것이다.

여기서 조달은 '제바달다'라고 하는데 'devadatta'의 음사이다. 곡반왕의 아들로 붓다의 사촌 동생이다. 출가하여 그의 제자가 되었으나 붓다에게 승단을 물려줄 것을 청하여 거절당하자 500여 명의 비구를 규합하여 승단을 이탈한다. 여러 번 붓다를 살해하려다 실패하는 캐릭터이다.

그만큼 조달은 한편으로 싯달타와 자웅을 겨루는 꽤 능력있는 청년이었던 것 같다. 당시의 코끼리라고 해서 작지는 않았을 터인데 조달은 코끼리를 거의 강아지 다루듯이 땅에 메친다.

또 다른 경쟁자 난타는 누구인가. 정반왕과 이모 대애도(마하파사파제) 사이에서 낳은 이복동생이다. 'nanda'의 음사이고 환희(歡喜)·가락(嘉樂)이라 의역한다. 붓다가 깨달음을 성취한 후 고향에 왔을 때 출가한다. 청년시절의 그는 조달과 막상막하의 실력으로 땅에 내친 코끼리를 공처럼 올려친다.

이미 싯달타 태자의 학문 실력은 64종의 책을 섭렵하여 고작 두 권을 가르치려던 스승 밀다라를 난처하게 만든 전력으로 세상이 다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무예 실력은 여기서 비로소 검증된다. 태자는 코끼리로 그야말로 홈런을 친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떨어질 코끼리를 달려가 안전하게 받아 고통스럽지 않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의 자비심까지 한 방에 보여준다. 게임 오버.

그리고 다음 차례인 힘을 겨루는 개인 상대의 씨름은 이미 코끼리 시합에서 결판난 것이다. 두 사람의 힘을 합해도 태자에게는 어림없음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이 내용을 〈월인천강지곡〉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삼십구장〈월인15ㄱ〉

난타와 조달은 코끼리를 올려 차며 굴려 당겨
두 사람의 힘이 다름이 없더니
태자는 혼자 코끼리를 성 너머 쳐서 받으시고
두 사람의 힘을 함께 이기시니

지식 대결

대신 염광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 팔만 가지 재주를 부리는데 태자에게는 이기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큰 신하라고 풀이한 대신 염광과는 어떤 내용으로 팔만 가지 재주 대결을 한 것인가.

〈석가보〉에 '염광'이 나온다. '대신 염광(炎光)이 산술(算術)에 제일이어서 산술을 말해 보았으나 그 역시 태자에게 미칠 수 없었다. 수목과 약초며 많은 물의 물방울 수효까지도 낱낱이 알고 있었고, 저포(樗蒲)·육박(六博)·천문·지리며 8만의 기이한 기술까지 모두 외어 알았지만 보살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大臣炎光 算術第一 言談算術 亦不能及樹木藥草衆水滴數一一可 知樗蒲六博天文地理八萬異術一切諳會不及菩薩)'고 한다.

> 이상형 '구이'를 배필로 맞으려
> 왕족·귀족과 역량 겨루기 나서
> 화살 하나로 28개 북들 꿰뚫어
> 무예·지식 등서 경쟁자들 압도

'석가보'에서는 싯달타 태자를 '보살'로 지칭하고 있다. 여기서 수목과 약초, 천문, 지리 등 우주 만물에 대한 열거에서 당시의 지식세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포'는 일종의 윷이나 주사위 놀이와 비슷하고 '육박'은 바둑과 비슷하다고 전하는 오래 된 게임의 역사도 엿 볼 수 있다. 〈석보상절〉이라는 책은 당시의 백과전서파와 같은 팔만가지 학문분야까지 중중무진하게 지식의 인드라망을 펼쳐 나간다.

활쏘기 시합

왕이 석가족을 데리고 또 활쏘기를 시험하셨다.

그 동산에 금북, 은북, 돌북, 쇠북이 각각 일곱 개씩 있었는데 조달이와 난타가 먼저 쏘니 각각 세 개씩 꿰뚫었다. 태자가 활을 당기시니 활이 꺾어지거늘 태자가 물으셨다. "나에게 맞는 화살이 있습니까."

왕이 이르셨다. "우리 조상께서 쏘시던 화살이 갖추 있되 그 활을 이겨 쏠 사람이 없으니 가져오라."

석가족들이 그 활을 이겨 당길 사람이 없었는데 태자가 손으로 눌러 당기니 활시위를 타는 소리가 성 안에 다 들렸다.

태자가 화살을 활시위에 메겨 쏘시니 그 화살이 스물여덟 북을 다 꿰어 땅을 꿰뚫고 가서 철위산에 박히니 삼천세계가 진동하였다.

세 번째는 활쏘기 시합으로 겨루도록 하였다. 〈석보상절〉에서는 '활쏘기를 받더시니'로 되어 있는데 〈석가보〉에서는 '다시 활쏘기를 시험하고자 하였다(王及釋種 更欲試射)'로 쓰여있다. 불교 전통강원에서 쓰이는 '강을 바치다'라는 말이 있다. '배운 글을 스승이나 시관 또는 웃어른 앞에서 외어 올리다'라는 뜻이다. '강을 받다'는 '선생이 자기가 듣는 앞에서 글을 외어 바치게 하다'라는 의미이다. '활쏘기를 받다'라는 말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말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600년 전에 쓰던 말을 하나하나 음미하고 되새겨보는 작업이 〈석보상절〉을 읽는 또 하나의 묘미이다.

'조상(祖上)'의 풀이도 '조(祖)'는 '할아버지를 비롯한 윗분들을 무수히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이른 말'이라고 정의한다. 15세기 주석이 새삼 신선하게 다가온다. 우리는 그 무수한 할아버지들의 자손이었던 것이다.

조달과 난타의 실력도 보통 사람으로선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경지이다. 그러나 태자는 신의 경지이므로 애초에 그 누구도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28개의 북을 꿰뚫고 땅을 뚫고 철위산을 관통해 삼천대천세계가 진동해야 진정한 승자인 것을.

불교의 세계관에서 '철위산'은 수미산이 중심인 세상에서 그 주위를 9산8해가 둘러싸고 있는데 9번째 맨 바깥쪽 산이다.

사십장

조달과 난타는 제 분수를 저리 모르므로 둘이 쏜 화살이 북 세 개만 꿰뚫으니
태자 신력이 이리 세시므로 한 번 쏘신 화살이 네 일곱(28) 북을 꿰뚫으니

스물여덟을 〈월인천강지곡〉에서는 운문의 맛을 살려 '네 개의 일곱'이라는 '네 일곱'이란 표현을 썼다. 마치 '이팔청춘'하듯이 말이다.

천제석이 그 화살을 빼어 도리천에 가서 탑을 세우고 공양하였다. 화살이 들어 있던 구멍에서 샘물이 나와 우물이 되니 맛이 단술과 같았는데 먹으면 병이 다 좋아졌다.

천제석은 제석천이다. 석제환인다라(釋提桓因陀羅)·석가제바인다라(釋迦提婆因陀羅)라고 쓰던 것을 줄여 제석천이라 하였다. 도리천(忉利天)에 주석하는데 수미산(須彌山) 정상에 있는 서른세번째 하늘로 사천왕(四天王)과 주위의 32천왕(天王)을 통솔한다. 그 제석천이 주석하는 도리천에 가서 화살을 모셔다가 탑을 만들었는데 이 탑은 천상의 네 탑 가운데 하나이다. 찾아보니 〈경률이상〉 권6에 도리천 동서남북에 붓다의 머리카락, 발우, 손발톱, 어금니를 모신 탑이 있다고 하는데 화살은 어디에 두었을까. 〈대당서역기〉 권6에는 화살샘(箭泉)이 성문 남쪽에 탑과 샘이 있다고 하였다. 화살을 뺀 곳에서는 만병통치의 샘물이 나왔다니 싯달타태자의 기량은 모름지기 중생구제를 위한 하해와 같은 자비로 귀결된다.

사십일장

땅에 화살이 꿰뚫거늘 단술샘(醴泉)이 솟아 나와 중생을 구제하시더니
철위산에 화살이 박히거늘 제석천이 하늘탑(天上塔)에 간직해 길이 세상에 전해지니

이렇게 만천하에 태자의 신력을 보이고 드디어 다음 이야기에서 태자는 구이와 결혼을 하게 된다. 신혼도 잠시, 그 유명한 '생로병사'의 사문유관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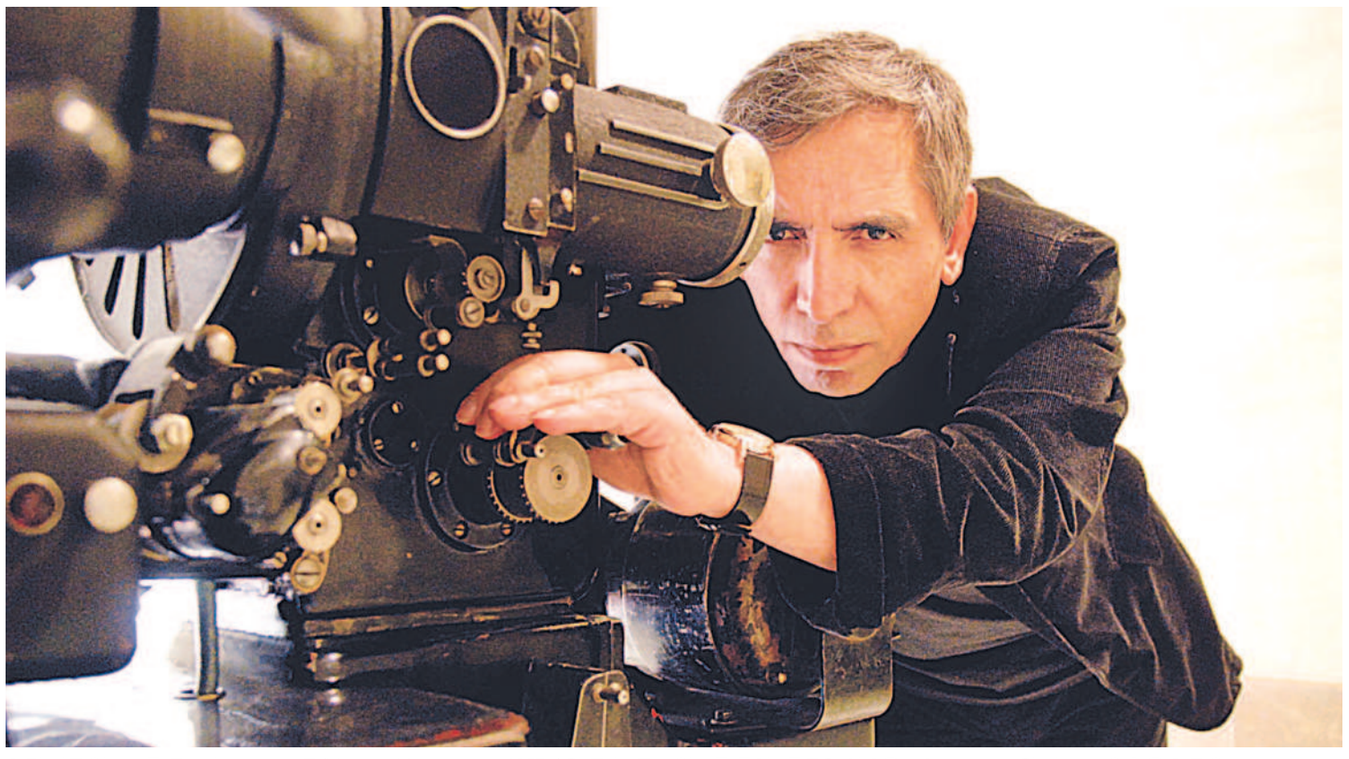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김혜신의 시네마 만다라 ❹ 마흐말바프의 영화세계



▶ 한줄 요약
모흐센 마흐말바프는 이란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이다. "석불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라는 말로 유명한 그는 탈레반이 저지른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석불 파괴의 본질적 원인을 꿎았다.

자비 · 평화, 스크린에 담다



이란 대표 영화감독 모흐센 마흐말바프(Mohsen Makhmalbaf, 1957~)의 모습. 그는 영화를 통해 '종교와 이념을 뛰어넘는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makhmalbaf.com

카메라 든 이슬람문화권의 '보살'

모흐센 마흐말바프(Mohsen Makhmalbaf, 1957~)는 압바스 키아로스타미(1940~2016)와 더불어 이란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이다. 그는 특히 영화를 통해 '종교와 이념을 뛰어넘는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그 실천력으로 인해, '살아있는 경전' 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존재이다.

이란 영화는 크게 보아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적인 계보 속에서 꾸밈없는 현실을 그리는 특유한 시적 미학으로 정평이 나 있고, 키아로스타미와 마흐말바프는 칸 영화제를 비롯한 유수 영화제에 여러 차례 초청된 세계적 반열의 시네아스트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부산국제영화제 등을 통해 교류하며 한국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초기부터 부산국제영화제에 몸담고 아시아영화의 교류를 위해 헌신하다 영화제 현장에서 아름다운 생을 마쳤던 故 김지석 수석프로그래머의 영화제 20년 결산서 〈영화의 바다 속으로〉를 보면, 짧지 않은 기간 가장 마음에 남는 사람은 바로 마흐말바프였다. 그는 책에서 마흐말바프를 수차례에 걸쳐 '살아있는 부처' 로 칭송하고 있다. 20년 세월 동안 전 세계의 얼마나 뛰어난 감독과 배우들이 부산을 찾았을 것이고 그들을 가까이서

이란 대표하는 영화 감독 평가
종교 · 이념 넘는 '평화 메신저'
탈레반의 압제속 아프간 담아

지켜보았을지 짐작이 가는 일인데, 그 중 왜 마흐말바프를 꼽았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불교와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그를 일컬어 '살아있는 부처' 라는 비유를 쓸 정도일까? 마흐말바프에게는 인격을 갖춘 예술가들에게서 보이는 타인에 대한 배려나 겸손함 정도의 미덕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심(下心)하여 세상의 모든 존재를 귀히 여기는 마음과 보살행이 있기 때문 아닐까. 관련된 많은 일화가 있다.

한 예로, 〈칸다하르(Kandahar)〉(2001년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를 찍을 때 일이다. 아프가니스탄 촬영을 하러 갔다가 굶어 죽어가는 난민들을 목도하고 고심 끝에 어렵사리 구한 제작비 모두를 그들에게 희사한 후 돌아갔다 다시 제작비를 구해 촬영을 재개한 일이 있었다. 또한 자신의 사무실 주위의 굶주린 개에게 먹이를 주다 상처를 입어 광견병에 걸렸는데, 그다음 날에 다시 나타난 같은 개를 가엽게 여겨 장갑을 끼고 먹을 것을 주었다는 일화도 알려져 있다. 게다가 그는 당시 성치 않은 몸으로, 포탄과 지뢰에 팔다리를 잃은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의 교육을 돕기 위해 남포동 한가운데에서 모금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는, 이슬람권의 가부장적 권위를 스스로 타파하고 아내와 자녀들과의 평등하고 열린 관계를 만들었고 가내 영화학교를 열어 두 딸과 아들을 모두 훌륭하게 교육했다. 본인뿐 아니라 그의 아내(시나리오 작가이자 감독)를 포함한 온 가족이 함께 영화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이다.

어떤 예술가는 작품에 의해서 보기 드문 독창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예술가는 삶 자체가 감동이고 '예술' 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영화는 타 예술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갖고 있으나, 마흐말바프는 영화인의 진정한 실천적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그 누구보다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된다.

바미안 석상, 부끄러워 스스로 무너졌다

마흐말바프는 오늘날 지구상의 최대 문제 지역 중 하나라 할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영화를 두 차례 찍었다. 1987년에 〈자전거 선수(The Cyclist)〉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의 문제를 일찌감치 조명했고, 2001년 〈칸다하르〉(이란 · 프랑스 제작)라는 작품을 통해 이 지역의 억압되고 피폐한 삶, 폭력의 온상이 되는 실상을 알리고 세계인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2001년은 뉴욕 9.11 참사, 그리고 그 몇 달 전인 3월 1일 세계 최대의 바미안(Bāmiyān) 석상이 일거에 폭파된 인류 역사상 뼈아픈 해이다. 둘 다 아프가니스탄과 관련이 있다. '뉴욕 테러와 같은 인명 경시와 문화적 · 종교적 테러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일까' 라는 마흐말바프의 문제의식을 공유해본다. 그 씨앗은 오랜 시간에 걸쳐 모두가 외면한 사이에 뿌리 깊게 자라고 있었을 것이나, 모두의 무관심 혹은 무기력 속에 방치돼 있다가 걷잡을 수 없는 방식으로 표출됐을 때야 뒤늦게 주목받게 된 것이 아닐까.

문제의 이 지역, 여기에 마지막 평화의 보루처럼 서 있던 바미안 석불의 폭파는 이후에 올 일련의 충격적 사건들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2001년 탈레반 최고 지도자 모하메드 오마르의 '우상' 파괴 포고령에 따라 흔적도 없이 이 불상이 사라졌을 때야 비로소, 전 세계 사람들은 그 무자비함에 공분하게 된다. 이 시기, 마흐말바프는 오래 준비해 온 〈칸다하르(Kandahar)〉(이란 · 프랑스, 2001)를 내놓았다. 이는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형식을 빌려 탈레반의 압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참상을 조명한 작품이다. 또한 "석불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Buddha Was Not Demolished In Afghanistan; It Collapsed Out Of Shame)"라는 글을 써서 석불 파괴의 본질에 주목할 것을 촉구하고, 자칫 세계 최대의 석상이라는 문화적 아이콘 뒤로 잊히고 방치될 수 있는 주민들에 대한 애민(哀愍)을 절절하게 호소한다. 불교의 본령은 무엇보다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보호하고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석불이 '부끄러워' 스스로 무너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수치는 우리 모두의 것이고, 귀중한 불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리라.

아프가니스탄은 본시 불교문화와 깊은 관계를 갖는 곳이다. 특히 바미안 강 북쪽 연안은 두꺼운 암벽을 파서 조성된 높이가 각 38m, 55m에 이르는 두 개의 사암 마애불입상과 숱한 불교사원으로 유명한데, 간다라 미술을 기조로 한 유적이다. 이곳은 역사상 〈대당서역기〉에 범연라국(梵衍那國)으로 기록돼 있고, 실크로드의 요충지이자 불교 신앙의 중심지로 동서 문화가 교차하는 곳이었다. 한국에서는 서기 400년 경에 법현 스님이, 630년에는 현장 법사가, 727년에는 신라 혜초 스님이 참배하고 기록을 남긴 바 있다. 8세기부터 이슬람이 침략하기 시작하여 많은 불상이 바그다드로 옮겨졌는데, 1221년 칭기즈칸군의 파괴로 폐허가 되었고 주민은 당시 모두 학살당했다. 혜초 스님이 "왕을 비롯해 수령이나 백성들이 삼보(佛 · 法 · 僧)를 크게 공경한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이곳은 평화로운 불국토였다.

그러나 현재는 아이러니하게도, 지상의 모든 폭력과 굶주림, 공포를 대변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에 마흐말바프는 국경과 종교를 넘어 그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아이들과 사람들을 생각하며 영화와 글을 통해 자비심을 실행한다. 그는 이란 국내에서도 독재자의 폭정 문제를 드러내 정치적 탄압을 겪고 폭탄 테러의 위협까지 받기도 했으나 굴하지 않는다. 〈칸다하르〉에서 그는 압제 속에서 죽어가는 아프간 사람들에게로 카메라를 들고 용감하게 다가간다.

이미지 금지된 나라를 끌어안다

마흐말바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모든 이미지가 금기이다. 한 장의 회화도 사진도 금지돼 있고, 물론 극장도 없다. 기자들도 그 사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절대 찍을 수 없다. 이렇듯 이미지가 금지된 땅에서 촬영된 영화가 〈칸다하르〉이다. 마흐말바프의 영화는 그 완성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현실의 시급한 반영이 더 중요하다. 영화를 만들기 전, 그는 1만 페이지가 넘는 책과 많은 자료를 보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실상을 치밀하게 들여다봤고 그곳으로 목숨을 건 잠행을 했고, 그 나라 사람들이 처한 실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석불 그 자체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인간적 진실을 말하고 싶은 것일지 모르겠다. 이러한 생각은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진다. 막내딸 하나 마흐말바프는 〈학교 가는 길〉(이란 · 프랑스, 2007)이라는 영화를 통해 바미안 지역의 실상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아버지가 〈칸다하르〉를 찍을 때 따라갔었다. 아버지는 식당에 들어가서는 며칠씩 굶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셨다." (정한석 인터뷰, 〈씨네 21〉, 2003년 10월31일)

아버지 모흐센에 대한 기억과 함께 만들어진 하나의 〈학교 가는 길〉은 한국에서도 개봉돼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꿈같은 학교 교실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배우고 싶어 하는 무구한 6살 소녀 박타이를 만난다. 그리고 이 소녀와 함께 흔적만 남은 바미안 석상 발치에서 불상의 잔해물을 들고 전쟁놀이에

막내딸도 관련 극영화 제작
바미안 석불 파괴에 내재된
폭력 계승의 근본원인 비판

열중하는 소년들을 만나게 된다. 가장 성스러운 종교의 유적들이 오히려 가장 큰 분쟁의 소지가 되고 끝없이 악순환하는 복수의 학습장으로 화한 현실 앞에 직면한 우리에게, 마흐말바프 가족의 영화는 많은 성찰을 하게 한다.

폭력의 온상이자 '학교' 가 돼버린 고대의 성지 아프가니스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주민들, 변변한 학교도 없이 벗어날 길 없는 비참함과 원한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실상은 우리와 관계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이를 외면하는 수치심을 알게 하고 자각을 촉구하기 위해, 어쩌면 거대한 불상은 우리 앞에 마흐말바프의 표현처럼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2021년 3월 석불은 물리적으로 복구됐으나, 그 정신적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

불기2565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있고 바미안 석불이 무너진 지 20주기가 된 시점에서, 마흐말바프라는 이란 감독의 현실 참여와 보살행을 돌아보았다. 그의 평화와 자비를 향한 영화적 여정을 잠시나마 함께해본 이 시간이 대승 불교의 실천적 정신으로 회귀하게 하는 하나의 신선한 자극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화 · 문화평론가〉

성불의 인연은 누구에게나 있다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⑱ 8세 용녀의 성불

지적보살이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그대가 용궁에 가서 교화한 중생의 수효가 얼마나 되나이까?"

문수사리가 대답하였다.

"그 수가 한량없어서 얼마라고 헤아릴 수 없으며, 마음으로 추측하지 못합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없이 많은 보살들이 바다로부터 솟아 나와 영축산으로 가 허공에 머물렀다.

이 많은 보살들이 모두 문수사리가 교화 제도한 보살이었다. 보살행을 갖추어 다함께 6바라밀을 설하며, 본래 성문이던 사람은 허공에 있으면서 성문행을 설하고 있더니, 지금은 모두 대승의 공의 도리를 닦고 있었다.

문수사리가 지적보살에게 말했다.

"바다에서의 교화는 이와 같습니다."

그때 지적보살이 게송을 설해 찬탄하였다.

"큰 지덕 대단하여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시니 이제 대중들과 내가 다 이미 보았나이다. 실상의 뜻 펴시며 일승의 법 밝히어 중생을 인도해 빨리 깨달음 이루게 하셨나이다."

문수사리가 말했다.

"내가 바다 속에서 오직 법화의 가르침을 항상 설했나이다."

지적이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다.

"이 경이 매우 깊고 미묘하여 경전 중의 보배라. 세상에서도 희유한 바이니, 더러 중생들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경을 닦아, 빨리 부처가 된 사례가 있나이까?"

문수사리 말했다.

"있습니다. 사갈라용왕 딸은 나이 겨우 8세였는데도 지혜롭고 명민하여 중생의 여러 근기의 행업을 알며, 다라니를 얻어 부처님들이 설하신 매우 심오한 비밀장을 다 능히 수지하며, 깊이 선정에 들어 제법에 통달하고, 찰나 사이에 보리심을 일으켜서 물러나지 않는 경지를 얻어 막힘이 없으며, 중생을 생각하되 갓난아기 같이하며, 공덕을 갖추어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다 미묘하고 광대하며 자비롭고, 마음씨가 상냥하여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적보살이 말했다.

"제가 석가모니여래를 뵈옵건대, 한량없는 겁을 걸쳐 난행과 고행으로 공덕을 쌓아 보리를 구하시되, 일찍이 그치는 일 없으셨으니, 삼천대천세계를 둘러보심에 겨자씨만큼이라도 이 보살이 중생을 위해 목숨 버린 곳 아님이 없었나이다. 그런 뒤에야 보리를 이루셨나니, 이 소녀 잠깐 사이에 정각을 이루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나이다."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용왕의 딸이 갑자기 앞에 나타나 머리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게송을 설해 찬탄하였다.

"죄와 복의 모습을 통달하여 두루 시방 비추시니 미묘하고 깨끗한 법신, 삼십이상 갖추시고 팔십종호로 법신을 장엄하시니 인간과 천상이 우러러 받들며 용신들도 모두 공경하고 숭배하지 않는 중생 없나이다. 또 법을 들고 보리 이룬 것은 부처님께서만 아시나니, 제가 대승의 법을 열어 괴로운 중생들을 건지오리다."

문수보살이 용궁에서 제도한 중생의 수가 얼마냐고 묻는 질문이 나온다. 그 수가 말할 수 없이 많아 알 수가 없다 하자 연꽃에 앉은 보살들이 바다에서 떠올라 영축산으로 허공에 머물렀다. 문수는 용궁에서 〈법화경〉을 설했다고 말한다. 용궁은 용왕이 거처하는 궁전이지만 불법(佛法)이 비장(秘藏)되는 곳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는 말이다. 〈화엄경〉도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가져왔다는 용궁장래설(龍宮將來說)이 있다. 이 장(章)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8세 용녀(龍女)의 성불' 이다. 사갈라 용왕의 8세 된 딸이 법화 일승법문을 듣고 성불했다는 것이다. 선가(禪家)의 돈오설(頓悟說)에도 이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데 영가진각의 〈증도가〉에도 나오고 대혜 종고의 〈서장(書狀)〉에도 나온다. '8세의 용녀가 어떻게 성불했나?' 의문을 품으면 하나의 화두가 되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화경〉은 성불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일체중생이 존재하는 것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불의 인연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용녀도 사람의 몸으로 변신하여 성불했다고 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성품 청정해야 악행 떨치고 선행 실천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⑱ 십종청정계

누구든지 선행을 하면 은근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거나 분노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선행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왜 선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처음부터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실망하거나 분노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선행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행의 동기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칠불통계게(七佛通戒偈)' 에서는 "모든 악을 저지르지 말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한다. 이 게송에서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은 대승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과보(果報)를 구하지 않는 청정한 마음' 일 것이다. 다시 말해 대승불교에서는 좋은 결과를 바라는 선행보다는 순수한 동기에 의한 선행을 장려한다.

이런 측면을 강조한 초기 대승경전으로 〈화엄경(華嚴經)〉을 꼽을 수 있으며, 계(戒)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 품에 산발적으로 보인다. 특히 십선업도(十善業道)와 관련된 내용은 '십무진장품(十無盡藏品)', '십지품(十地品)', '이세간품(離世間品)' 등에 보인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십지품' 에서는 십지(十地) 가운데 제2지인 이구지(離垢地)에서 십선업도를 행하고 지계바라밀(持戒波羅蜜)로 모든 번뇌를 여읜다고 설한다. 또 '보살이 계바라밀(戒波羅蜜)을 행하는 이구지에서 스스로 십선(十善)의 청정한 계를 가져 사람들에게 가지도록 하고, 일체 중생에게 가엾은 생각을 일으켜 마음 깊숙이 자비심이 일어나도록 세 가지 청정한 계[三種淨戒]를 갖추어야 한다' 고 설한다.

또 '십무진장품' 에서는 계장(戒藏), 즉 10가지 계를 설한다. ①널리 이롭게 하는 계[普饒益戒], ②받지 않는 계[不受戒], ③머물지 않은 계[不住戒], ④뉘우침이 없는 계[無悔恨戒], ⑤어기거나 다투지 않는 계[無違諍戒], ⑥시끄럽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계[不損惱戒], ⑦섞임이 없는 계[無雜穢戒], ⑧욕심내어 구함이 없는 계[無貪求戒], ⑨과실이 없는 계[無過失戒], ⑩헐고 범함이 없는 계[無毁犯戒]이다. 이 가운데 열 번째 계가 바로 청정계(淸淨戒)이며, 10가지 악업을 여의어서 10가지 선업을 받아 지니는 것이다.

또 '이세간품' 에서는 십선(十善)을 확대한 십종청정계(十種淸淨戒), 즉 10가지 청정한 계를 설한다. ①몸이 청정한 계, ②말이 청정한 계, ③마음이 청정한 계, ④모든 학처(學處)를 파(破)하지 않는 청정한 계, ⑤보리심을 수호하는 청정한 계, ⑥여래께서 제어하신 바를 수호하는 청정한 계, ⑦은밀하게 호지(護持)하는 청정한 계, ⑧모든 악을 짓지 않는 청정한 계, ⑨모든 것이 있다는 견해를 멀리 여의는 청정한 계, ⑩모든 중생을 수호하는 청정한 계이다.

앞의 세 가지는 차례대로 신청정계(身淸淨戒), 어청정계(語淸淨戒), 의청정계(意淸淨戒)라고 한다. 육체적인 행위의 청정함은 몸의 3가지 악(살생, 도둑질, 그릇된 음행)으로부터 보호한다. 언어적 행위의 청정함은 말의 4가지 허물(거짓말, 꾸미는 말, 험담, 이간질)을 여의게 한다. 의지적 행위의 청정함은 탐욕, 성냄, 그릇된 견해를 여의게 한다. 나아가 보살이 10가지 청정한 계에 안주하면 여래의 위없고 과실 없는 청정한 계를 얻는다고 한다.

이처럼 〈화엄경〉에서는 반야 계통의 경전과 달리 정계(淨戒)를 강조하며, 3가지 또는 10가지 청정한 계를 설한다. 궁극에는 성품이 청정해져야만 저절로 열 가지 악행을 여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가지 선행을 끊임없이 실천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⑱ 고대 인도의 기녀(妓女)

망고숲 보시한 '암라팔리'

고대 인도사회에서 사용하던 가니까(ganika)라는 말이 있다. 이는 집단을 뜻하는 가나(gana)에 소속된 소유물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가니까는 어떤 집단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일원들이 수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의 재산인 셈이다. 이것은 특정한 물건일 수도 있으며 인간과 그들의 노동력일 수도 있다. 이 가니까에 속하는 대표적인 유형의 인간이 바로 기녀이다. 베다 시대부터 석가모니 당시에도 가니까에 속했던 인물이 있었으며, 불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이 바로 암라팔리(Āmrapālī)이다. 암라팔리는 바이샬리 공동의 자산이었으므로 어떤 의미에서 기녀보다는 관기라는 말이 더 적당할 것이다. 이러한 도시를 대표하는 유명한 기녀는 여러 명이 알려져 있는데, 마투라에는 바사다밧따(Vasadavatta)가 있었고 라자그리하에는 살라바띠(Salavati)가 있었다. 그 가운데 암라팔리가 가장 대표적이고 오랜 사례가 될 것이다.

암라팔리는 망고나무 밑에 버려진 아이였다. 그 후 망고숲 관리인의 자식으로 성장해서 결국 그 숲을 소유하기에 이른 여인이다. 이름에서 보듯 이 여인의 이름은 '어린 망고' 이다. '망고와 같이 달콤한 존재가 될 어린 싹' 이다. 입양될 때부터 아름다웠던 암라팔리는 공화국 바이샬리가 소유한 '망고' 그 자체였다. 여러 귀족들이 그녀를 탐내어 서로 분쟁의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공화국에서는 그녀를 나가르바두(nagarvadhu)로 지정한다. 즉, 지금의 공창(公娼)이었거나 국가 소속에 소속된 기녀(妓女) 정도의 인물이었다. 나가르바두는 시를 짓는 법과 악기, 춤과 같은 기예를 익혀 최고의 기녀로 만들어진다. 매춘이 합법적이었던 바이샬리에서 암라팔리는 막대한 재산을 모았지만 석가모니의 가르침으로 불법에 귀의하고 자신의 망고나무숲을 승가에 바친 일화로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다.

사회기관으로서 고대 인도사회에서 기녀가 등장했던 것은 대략 기원전 7세기에서 8세기 정도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후대의 불전문학인 〈본생담〉 등에 다양한 기녀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지만 힌두문학을 통해서도 이들의 흔적을 추적해볼 수 있다. 베다 시대에는 제사를 치러주는 대가(daksina)로 말이나 소 등을 사제들에게 제공했지만 때로 여자 아이를 사원에 바치기도 했다.

이들은 사원에 들어가 '신들의 시종(devasasi)' 이 되어 사원축제를 위한 기녀의 역할을 하거나 사제들의 몸종이 되었다. 고대 인도의 기녀들이 춤과 노래 그리고 시작법을 포함해서 64가지의 기예를 익혔다. 이러한 기예는 무료로 제공되었으며, 이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인물들을 따로 배정해서 관리해왔다.

이들의 봉사료에 대한 대가는 상당히 높았는데 유명한 기녀일수록 당연히 그 대가는 치솟게 마련이었다. 하루 저녁의 봉사료는 은화로 대략 100냥 정도 추정해볼 수 있다. 당시 널리 통용되던 화폐는 은화였으며 단위를 빠나(pana), 또는 까르샤빠나(Karsapana)를 사용했는데, 라자그리하의 살라바띠의 봉사료는 100빠나가 되었다고 한다. 이 봉사료는 관기들의 연봉이 대략 1000빠나에서 3000빠나 정도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 자이나교 문헌에 따르면 완벽한 아름다움과 기예를 보여주는 기녀들은 하루에 1000빠나를 받았다는 것으로 미루어 아마도 귀족들과 큰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나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관청에 소속된 기녀들은 왕실에서 월급을 받았으며, 그 돈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으나 그들을 위해 마련된 부대시설과 물건들은 함부로 매매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기녀들의 자식들에게 상속되어 상용할 수 있었지만 그것들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보시하는 일은 불가했었다. 암라팔리의 경우와 같이 뛰어난 기녀들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으며, 암라팔리 자신은 축적된 재산으로 망고 숲을 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승가에 보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알아차림의 연습

저는 10년 넘게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연습해서 마음이 많이 변했어요. 좌선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없더라도 일상에서 언제나 알아차림을 기를 수 있어요! 몇 가지 꿀팁을 드립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 입니다. 알아차리겠다는 의도를 갖는 것은 불을 켜는 것과 같아요.
* 지견 확립, 이론과 체험으로 알아차림의 지견을 확립해 지견과 익숙해지는 게 수행이에요.
* 일상 중에 머리를 안 쓸 때 알아차림을 연습하세요. 직업 자체를 명상으로 삼는 게 좋아요.
*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진전의 비결은 꾸준한 노력이에요.
* 수행의 대표적인 장애는 기대입니다. 알아차림은 바라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거예요.

꾸준히 알아차림을 연습하면 1년 뒤에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겨요. 10년 뒤에는 도인이 되죠. 겉으로 보면 일반 사람하고 다르지 않지만 내면의 경험이 완전히 다르죠. 따로 정해진 곳을 찾아가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 깨어있는 게 수행이에요. 생각을 굴리는 만큼 업을 쌓고 고통을 만들어요. 알아차리는 만큼 업을 소멸하고 행복하게 되요. 산란함 자체가 고통이고 알아차림 자체가 행복이에요.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⑨ 라오반장

차 기운에 패왕 기세 더한 명품 보이차

차를 품평하는 용어 중에 '차기패도(茶氣霸道)'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의 기운에 패왕의 강렬한 기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통일군주의 강렬한 기세, 라오반장은 차기패도를 대표하는 차로서 보이차의 황제라고 부를 만합니다. 라오반장 보이차 한 잔에 모공이 열리며 땀이 훅 솟고 척추를 타고 머리 위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면서 눈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또한 차기가 충만해서 맛이 묵직하고 꽉 찬 맛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도도한 물의 힘이 있습니다.

라오반장은 보이차 중에서 명품 보이차로, 최고가를 갱신하며 차인이면 누구나 맛보고 싶어 하는 차입니다. 남쪽에는 라오반장(老班章), 북쪽에는 빙다오(冰島)가 유명한데, 남과 북의 구별은 보이차 산지인 윈난성 시솽반나의 북쪽과 남쪽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빙다오는 화려한 향으로 사랑을 받고 라오반장은 도도한 차의 기운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보이차의 황제 라오반장은 윈난 시솽반나 멍하이(勐海) 뿌랑산(布朗山포랑산) 라오반장촌에서 생산됩니다. 뿌랑산에는 라오반장(老班章)촌, 신반장(新班章)촌, 반장(班章)촌, 라오만어(老曼峨)촌 등 지역에서 각각의 개성을 지닌 보이차가 생산됩니다. 보이차는 차산환경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차산의 마을 이름이 곧 보이차의 상표가 됩니다.

뿌랑산이 보이차 산지로 유명해진 것은 해발 1700m 고산지대에 고차수 다원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령 300~500년 이상 된 고차수들이 원시삼림 속에 울창하게 분포해 있습니다. 청나라 때에 너무 궁벽한 곳이라 관료들의 눈에 들지 않았기에 오히려 고차수 다원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라오반장촌은 본래 뿌랑족(포랑족)이 차나무를 심고 가꾸어왔는데, 훗날 멀리서 이주해 온 하니족에게 마을을 양보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라오반장촌은 차나무 보호를 위해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금지합니다. 외부의 찻잎이 라오반장촌으로 들어와서 라오반장 찻잎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마을 입구에는 공안 복장의 경비원이 보초를 섭니다. 라오반장촌에는 114가구가 사는데, 대문 앞에 노반장 1호집, 2호집, 3호집… 이렇게 나란히 문패가 달려 있습니다.

라오반장촌 7호집 막내딸 샤오메이의 안내로 라오반장촌으로 들어갔습니다. 별장 같은 집들이 빼곡히 눈에 들어옵니다. 라오반장 보이차의 급부상으로 모두들 부유해지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집을 새로 건축하고 외제차를 구입하는 일이었습니다. 늦게 집을 짓는 사람일수록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짓는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첩첩산중의 오지에서 전 세계 차인들의 주목을 받는 보이차의 성지로 부상하기까지, 라오반장촌 20여 년의 역사가 바로 현대 보이차의 역사나 다름없습니다.



보이차계의 '명품' 으로 불리는 라오반장.

윈난 뿌랑산 라오반장촌에서 생산
찻잎이 두껍고 윤기, 차기운 왕성
산기운후 난향 · 화밀향이 백미로

라오반장촌 골목에는 돼지들이 강아지처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동과돼지라는 까맣고 작은 돼지입니다. 샤오메이는 멀리서 손님이 왔다고 미리 잡아서 준비해둔 동과돼지고기를 직접 요리해 주었습니다. 돼지에게 미안해서 못 먹을 것 같았지만 7호집 가족의 정성에 감사히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떠들썩한 과정에서 귀에 익숙한 단어들이 들려옵니다. 나, 너, 엄마, 아빠 …, 중국어로 대화할 때는 몰랐는데 가족들 간에는 하니족 말을 쓰니까 우리말과 똑같은 몇몇 단어들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하니족은 어떤 문자를 쓰나요? 하니족의 조상은 누구인가요?"

나의 질문에 뜻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하니족은 라오반장 토착민이 아니고 먼 곳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이에요. 하니족은 고유 언어는 있지만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혼례복에 자수를 놓아 하니족의 역사와 이주경로를 남겼어요. 저도 할머니 혼례복을 어머니로부터 받아 간직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수도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요. 한 번은 어른들이 '하니족은 조선족이 있는 백두산에서 이주해 왔다' 고 말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어요."

실은 윈난성 다른 마을에서도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백두산 지역에서 윈난성으로 이주해 왔다고, 그래서 색동무늬나 백설기떡 등 친근한 전통이 윈난에 많이 남아있다고요.

라오반장 보이차는 고가입니다. 보이차계의 '명품' 이라고 할까요. 357g 차 한 편에 수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특히 중국경제의 급성장으로 '차이니즈 리치' 가 증가하면서 중국 현지의 수요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오반장은 앞으로 더욱 가격상승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셔보고 싶은 차이지만 아무나 마실 수 없는 차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다행히 오래전에 라오반장과 인연이 되어서 십수년 간직해온 차들이 있습니다. 차복이 있어야 명차를 만날 수 있다는데, 귀한 차복에 감사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소중하게 아껴둔 라오반장 한 편을 펼쳐봅니다. 차를 감싼 면지를 펼치자 벌써 차향이 그윽하게 퍼집니다. 찻잎은 두껍고 차기운이 왕성합니다. 크고 튼실하고 백호가 빼곡하고 윤기가 좔좔 흐르는 차를 보며 '찻잎이 참 잘 생겼습니다!' 감탄하면서 살살 해괴하여 1포, 2포, 3포… 10포, 고수차가 지닌 강렬한 산기운 뒤에 달콤하게 차오르는 난향 화밀향… 예전에 어떤 스님께서 이리 험한 산지에서 여러 사람의 노고를 통해 오는 귀한 명차를 받아 마시니 차 한 잔에 삼배를 해야겠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라오반장 보이차를 음미하며 여러 번 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잇다it茶 대표〉

마음책 다시 읽기 부처님의 감정수업 굿바이, 분노

▶ 한줄 요약
분노, 긍정적 행위로 인한 결과를 모두 바꾼다.

‘공덕’ 파괴범, 분노를 제거하라



행복을 위한 디록스

중생은 태어나는 흐름에 머무는 존재를 뜻합니다. 그들은 생존에 대한 욕구를 원동력으로 태어남이라는 굴레에서 끝없이 돌고 있습니다. 또한 탐진치(貪瞋癡)라는 독소에 물들어 이로 인해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이미 자연 상태의 열반에 도달해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열반’이란 태어남의 근본인 탐진치라는 번뇌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로, 윤회의 쳇바퀴가 멈춰 온전한 평화에 이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부처님께서 선언하신 내용과 확연히 다릅니다. 열반의 평화는 고사하고 우리는 현실에서 갖가지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중생은 그저 중생일 뿐 결코 열반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괴리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속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래 천국인 에덴동산에서 살고 있던 아담과 이브는 뱀의 유혹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과일인 ‘선악과(善惡果)’를 따 먹고 쫓겨납니다. 행복한 천국에서 고통의 세계로 이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시되는 해결책이 바로 ‘믿음에 의한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불교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조금 도발적인 해결책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수행을 통해 선악과를 뱉어 버리는 것입니다.

불교적으로 볼 때 ‘선악과’는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이며 탐진치(貪瞋癡) 중 치에 해당하는 ‘근본적인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분법적인 사고의 시작점에는 자아에 대한 착각이 자리합니다. ‘나’라는 개념이 실재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을 나와 너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둘이 되면 만법이 생겨나듯 자타(自他)의 구분은 아군과 적군, 좋은 것과 싫은 것, 선과 악 등 모든 상대적 개념을 만들어 내는 근본이 됩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뱉어 버린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아’의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양의 크리스천인 신비주의자들 또한 이런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이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는 바로 자아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내 습관, 생각, 감정, 의도가 남아 있는 한 하나님의 진리는 자아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가 남아 있는 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온전히 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신비주의자들은 자아의 죽음을 위해 다양한 수행방법을 개발하고 실천했다고 합니다.

선악과라는 독극물은 우리에게 자아라는 우치를 남겼습니다. 이 자아에 대한 착각은 탐욕을 만들었고, 탐욕은 분노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종종 예상치 못한 고통에 휩싸이는 이유는 탐진치라는 심병에 걸린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병을 고치는 치료약으로 ‘무아’를 제시하셨습니다.

무아는 선악과를 먹고 물들어 버린 자아에게 선악과를 뱉어내도록 유도하는 치료제입니다. 자아라는 개념의 허구성을 꿰뚫어 알 때, 우리는 생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이 근본적 탐욕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 분노할 일이 적어집니다.

그렇게 생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중생은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에덴동산, 즉 열반의 세계에서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바세계라고 여기는 지금 이 자리가 열반의 세계입니다. 바뀐 것은 단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바로 이곳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본래 부처님의 눈으로 살던 우리는 선악과로 인해 이분법적 인식체계에 물들어 열반의 세계를 사바세계로 오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인식체계를 교정하기 위해 이분법의 근본이 되는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교육하셨습니다.

수행을 통한 집착 탈피
제3시각에서 지혜 나와
분노다스리면 선업쌓여

부처님의 열반 교육을 받는 제자들은 고향에서 고향 찾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중생은 이미 열반이라는 고향에 머무르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여기며 허구의 고향을 찾습니다. 이렇게 중생이 이미 고향에 있는데도 고향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서는 불이(不二)인 열반의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은 이미 자연 상태의 열반에 도달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이미 고향에 도착해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이곳이 바로 고향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아의 약을 통해 선악과를 뱉어내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이 과정이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생은 본래 자연 상태의 열반에 머무르고 있었음을 ‘본각(本覺)’이라 했고, 선악과를 뱉어내기 위해 수행을 시작하는 것을 ‘시각(始覺)’이라 했으며, 무아의 치료가 완료되어 순수한 인식을 되찾아 바로 이곳이 열반의 자리였다는 것을 깨달은 상태를 ‘구경각(究竟覺)’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지닌 욕구입니다. 이 여정의 시작은 본각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보조국사 지눌 스님은 이 확신을 ‘돈오’라고 표현했고, 이렇게 먼저 깨친 후에 수행하는 돈오점수가 올바른 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깨치고자 하는 이들뿐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고자 마음먹은 이들에게도 돈오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각에 대한 확신은 자존감을 높이고, 분노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가요? 선악과를 뱉어내는 수행을 시작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분노사회

현시대의 한국사회를 부르는 별칭에는 ‘분노사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분노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분노에 중독된 것은 사실입니다.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와 남, 그리고 세상을 용서해야 합니다. 만약 용서하지 못한다면 분노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감옥에 갇혀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다양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에 도움이 되는 마음의 습관들을 공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베푸는 습관, 도덕적으로 사는 습관, 올바로 노력하는 습관 등입니다. 그런데 분노는 이런 모든 공덕을 단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듭니다.

오랫동안 노력한 공덕이 단 한 번의 분노를 사라진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하고, 이후 행복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여정이 너무 막막합니다.

만약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하다면 차라리 행복을 포기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오해를 해결해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에는 폭력적인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화가 나는 순간, 마음의 선한 습관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논에서 말하는 모든 공덕이 파괴된다는 것을 오해하는 이유는 공덕이라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아끼는 우정을 예로 들면, 이 마음은 독자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작용할 때에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정이라는 공덕은 조건에 따라 생멸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와 싸우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그 친구를 아끼는 우정은 없어지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모든 공덕이 파괴된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는 순간 모든 긍정적인 마음의 습관들이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용서로써 분노를 해결하는 순간, 그 우정을 비롯한 모든 공덕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은 행복지수로 사는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이 분노입니다. 유튜브에는 카페에 물건을 놓거나, 택배를 문 앞에 놓는 등의 실험을 통해 한국인들이 얼마나 도덕적인지를 보여주는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생 노력해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 노력은 수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덕의 방화범인 분노는 꼭 다스려야 합니다.

저자 : 원빈 스님
〈이층버스 펴냄〉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340 호 현대불교
2021년 5월 12일(음 4월 1일) 수요일 / 불기 2565년

우리들의 마음이 있고 이 묘법이 있는 이상 부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어저께 말씀드리던 어류에 대한 얘기를 마저 끝마치겠습니다.

동해가 있으면 서해가 있고 남해가 있고 또 북쪽으론 압록강이 있고 또 한강이 있고 낙동강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거론되느냐 하면 사람이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을 깨친다면 그때부터 진짜 공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구의 세상으로부터 모든 걸 검토해서 대천세계까지 치더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에 보림해 가면서 결국은 모든 습과 또는 체험과 모든 것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자기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돌아오고 돌아가는 것도 없지만 공부할 때에 그렇게 어디고 아니 닿는 데 없이 체험을 안 하면 아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다시 부처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어류들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중생이니까. 내 몸에 대한 것도, 이 몸도 중생인 거라. 그런데 선의 중생이 있고 악의 중생이 있거든. 그럼으로써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물속에서 사는 생명들이 천차만별로 있는가 하면, 무정물이라든가 식물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돼 있고, 동물들이 천차만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돌의 생명이든지 어떠한 거든지, 물질이라면 그건 생명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다 하고 난 뒤 그때서야 이 자유자재권을 가지고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거죠.

물에서 노는 생명들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돼 있지마는 안타깝게 인간의 살림살이와 삶과 그 도리가 어쩌면 그렇게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물들이 모두 물에서 살면서 진화되고 모습을 바꾸고 이렇게 사는 동물도 있다는 얘깁니다. 살다 살다 보니깐 진화되고 모습을 바꾸기도 하고 또 자기 앞가림도 해야만 되는 것이 생명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로 낳는 게 있고, 알로 낳는 게 있다는 얘깁니다. 입으로 낳는 것도 있거든. 입으로 낳아서 입에서 기르는 그러한 어류도 있다는 얘깁니다. 태로 낳는다 하는 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상어라든가 이런 큰 짐승들도 그렇고 숭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태로 낳는 겁니다.

모두가 이렇게 천차만별로 돼 있을 때에 알을 한꺼번에 5만 마리도 낳을 수 있고 또 몇만 마리도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2백 마리, 3백 마리 이렇게 많은 것을 낳지만 태로 낳는 거는 사람들이 하나나 이렇게 낳는 것처럼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쭌히 자기가 보호해서 기를 수 있고 또 아주 알을 깨뜨려서 배 속에서 길러서 나오니 얼마나 알토란 같습니까? 우리 인간들처럼 배 속에서 보호해서 길러서 바로 사람이 돼서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한테 착취당할 일도 없죠.

그런데 이 알로 낳는 거는 착취를 많이 당한단 말입니다. 알로 낳아서 이렇게 뭉치 뭉치 놓는다면 또 그것을 착취해 가는 그런 고기들이 있어서 다 잡아먹거든요. 그럼 이게 몇 마리 성사를 못 보는 거죠. 고기들이 그렇게 해 가면서도 어떠한 어류는, 미꾸라지도 그렇지마는 진흙땅을 파고서 그 속에 들어가서 알을 낳게 되면 스스로 그렇게 묘한 것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의 그 에너지를 꺼내서 실로 만들어서 매달아서 천장에 모두 알들을 만들어서 요렇게 끼워 놓기도 하고 그러는 어류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절로 까서 이렇게 나올 때까지 보호해 주는 것도 있고 알을 싸 놓고 그냥 가는 어류도 있거든요.

우리 인간도 그냥 낳아 놓기만 하고 그저 무심히 그렇게 돌리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또 그냥 낳아 놓고 죽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돼 돌아가고, 또 입으로 낳는 것도 입에서 다 길러서 바로 그 물알 주머니에서 탁 터져서 나가면 새끼가 그냥 나가서 물에서 놀다가 또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입에서 다 크도록까지 길러서 내놓는단 말입니다. 배에서 길러서 내놓는 거는 큰 상어 같은 거, 또는 상어뿐만 아니라 숭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해서 내놓거든.

그런데 이런 신기한 얘기도 있습니다.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그 사실. 우리가 가자미나 넙치 같은 거를 사다 먹죠? 여러분이 사다 먹을 때 언제나, 하치않은 그런 어류지마는 그거를 상세히 생각해 본다면 너무도 묘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잡아먹을 때도 그렇고 물을 입에 넣었을 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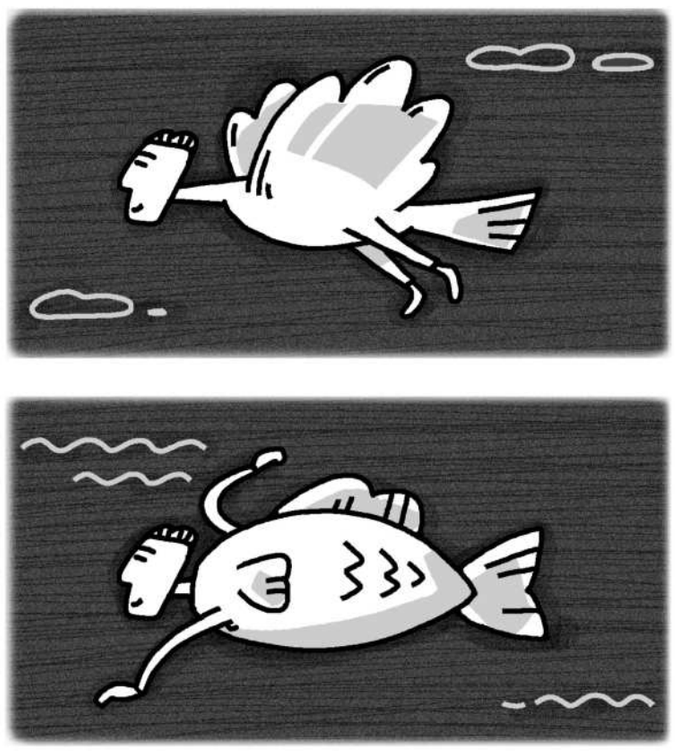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아가미로 물은 나가고 건더기만 건져서 먹는 것, 또는 우리가 정맥 동맥이 통하듯이 나쁜 물질이 있으면 그것을, 이산화탄소나 이런 거는 빼 버리고 자기가 영양 있는 것만 들여놓는 그러한 조개들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가자미 눈을 가만히 보고선 왜 너는 모로 그렇게 박혔느냐 생각을 하니 그 가자미는 항상 남한테 먹히기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바닥에서 내 몸을 가려서 어떡하든지 수를 써서 내 방어를 해야 할 텐데 방어할 길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이 납작하기 때문에 항상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방어를 해야 할 텐데 그 모습을 바꿀 수도 없고 방어할 수도 없고, 눈이 양쪽으로 돼 있으니 이것을 반듯하게 들면 한 눈밖에 도대체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생각을 했습니다. 가자미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렇게 납작하게 엎드려 있으면, 즉 밤에는 까맣게 되고 또 낮에는 하얗게 돼야만이 될 수 있지 않은가.' 또는 눈이 이렇게 한데로 몰려야 드러누워서도 눈으로다가 다 보지 않습니까? 두 눈으로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깐 그러한 생각을, 자기가 부자연하니까 생각을 했던 것이 그게 진화력입니다, 진화력! 그러니깐 그러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서 그렇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있던 자리에서 옮긴단 말입니다. 얼마나 묘합니까? 그러니 처음에 났을 때는 양쪽으로 눈이 돼 있었지마는 점점점점 가면서 그렇게 모로 딱 두 눈이 돼 있으니까 이놈의 가자미가 탁 붙어서 드러누워도 이렇게 볼 수 있죠, 다. 그러한 방어를 해서 살고 있는 그런 어류도 있단 얘깁니다.

그러면서도 말같이 생긴 그런 어류도 있고 또는 소같이 생긴 것도 있고, 또 용같이 생긴 것도 있고 날개가 달리고 비늘이 거꾸로 붙고, 비늘이 그냥 말도 못 하게 예전에 이무기라는 그런 용처럼 생겨서 사는 것도 있고 또는 상어도 아주 그 참, 점점점점 진화력을 가지고서 조그맸을 때부터 더 클 때까지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파도에 휘달리면서도 늠름하게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자꾸 진화되니까 그게 백상어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몸이 하얗게 된 것은 재주가 훌륭하고, 자기 앞가림을 다 할 수 있고 자기 마음이 진화돼서 융통성이 있으니 결국은 고래상어나 이런 거는 전부 물에서 왕이죠. 즉 말하자면 산에서 사자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화력을 튼튼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벌써 미리미리 소통을 하니까, 즉 말하자면 무전통신기가 있기 때문에 다 그걸 통하죠. 판단도 하죠. 인간 모르는 거보다 더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물속에서도 천차만별로 차원에 따라서 힘이 있고 차원에 따라서 힘이 없고, 이러한 어류들도 천차만별로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깁니다. 때에 따라서는 상어도 그런 능력이 있어서 푸른 상어가 있는가 하면 검은 상어가 있고 또 색색을 가진 어류도 있고 별의별, 말로 어떻게 다 할 수 없으리만큼 그렇게 천차만별로 생겨 있고, 마음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돼 있고, 재주가 훌륭한데 그 재주가 천차만별로 돼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대로 때에 따라서는 진화력을 가지고서 그 능력이 무쌍하다면 바로 날개가 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기도 하죠. 그러니 그것은 물에서, 어류라고 하기 이전에

☞ 22면으로 계속

여러분을 죽이고 살리는 건 여러분들 마음 한 점에 있습니다

☞ 21면에서 계속

물의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막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미터든 50미터든 막 날아서 돌에 가서 한참 궁리를 하다가 또 물로 내려가곤 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무에도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걸쳐서 있다가도 가고 풀섶에 있다가도 다시 내려가고 이러는 수가 많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공부하신 어느 부처님께서 사대의 모든 오온의 근본을 이렇게 내려 보시니까 그렇게 모두 차원이 돼 있고 천차만법으로 광대무변하거든요. 그래서 강을 한번 스르르 돌고 계신데 어느 어류는 나무 끝에 올라서 있고 하나는 돌 위에 있으면서 날개가 달려 있고, 나는데 아주 묘하더랍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슬프게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하니까 "사정이 이러하고 이러해서 저는 수천 년을 물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몸을 벗고 싶습니다. 그래서 날아 보고 이렇게 해도 이 모습이 이와 같이 생겼기 때문에 도저히 스님처럼 그렇게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스님께서는 "알았다." 하시면서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닐지언댄 바로 그 몸은 홀연히 벗어나리라." 하시면서 그 어류를, 백상어든 어떠한 어류든 그런 차원에 있는 어류는 바로 동물로, 인간으로 인도하시고 또 차원이 낮은 거는 낮은 것대로 또 걸어 다니게 인도하시고 또 아주 낮은 거는 낮은 것대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게끔 스스로서 정하시니, 어디고 손이 안 닿는 데가 없더라 이런 겁니다.

우리 손 손이, 발 발이 안 닿는 데가 없다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 여러분과 나와 둘이 아니요, 내 자리 아님이 없다. 그러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찾아가서 내가 이 공부를 해야겠다 하거나, 저기 위대한 스님 또는 위대한 공부하신 스님네들이 계셨던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기도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 한다는 얘깁니다.

그 한자리건만 나로부터, 지구 세상으로부터 전체 위로 대천세계까지 오르고 내리면서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닦아서, 여러분과 같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그 뜻까지, 자기가 자유활동을 할 때까지는 내가 알았다 몰랐다 할 게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 가지고 알았다 몰랐다 할 게 없는 거기까지 가보고 나면 또 내가 나라고 내세울 게 없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광대무변한 것입니까.

그러니 그 모두가, 이 물에서 사는 것들도 자기 앞가림들을 그렇게 묘하게 잘하고 추우면 추운 대로, 소라들도 몇 종류가 되는데 자기 앞가림을 자기 앞가림대로 합니다. 나는 큰 소라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하, 너는 추우니깐 바로 문을 닫는구나.' 그 문을 갖다가 아주 하얀 문으로 싹 가려 버려. 그럼 우리가 추워서 문 닫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우면 소름이 끼치고 쫙 달라붙고 그 모든 따뜻한 운기가 바깥으로 새지 않게 옷을 덥게 입고 하는 그런 우리 동물들의 그 묘법.

그 어류들도 그렇게 방어를 하면서 추우면 추운 대로 방어를 하고 더우면 더운 대로 방어를 하면서 모든 것이 일체 만법을 활용을 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묘합니까? 이 세상에 모두가 그렇게 묘법에 의해서 동심으로서 바로 동생, 공체, 공식화하면서 연쇄적으로 잡아먹히고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생명들이 묘하다기보다도 어떤 때는 '어, 불가사리 같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그것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정이죠. 자연입니다, 그것이. 자연 법계에서는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자체가 생각을 해 보면 모든 것이 어쩔 수 없어서 어떤 거는, 조개 같은 거 이런 것도 피가 흐르는 게 있고, 그것도 상류



물이 파도가 쳐도 한 생각도 없이 빈 배 떠 가듯,
빈 배가 일렁일렁 리듬을 타고 가듯이
그저 리듬을 타고 이렇게 살아나가라.

계급에 있는 거나 차원이 높은 거는 피가 흐르고, 그렇지 않으면 무투명하게 피가 없이, 붉은 피가 없이 그대로 있어요. 조개란 놈도 어떤 거는 내고 들일 수 있는, 맑은 물을 들여가고 헌 물은 내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다 우리 정맥 동맥이 순환을 하듯이 그렇게 순환을 하고 있더라는 얘깁니다.

그것을 참, 하나를 보면 열을 보고 열을 보면 백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해 보면 열 가지를 하게 되고, 열 가지를 해 보게 되면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기를 가 보게 되면 바로 저기를 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질 보게 되면 그것을 또 한 번 검토해 보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참, 천하에 일등 가는 이 공부라고 봅니다. 이 천하에 일등 가는 공부를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류들도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진화력을 가지고서 그렇게 몸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면서 자꾸 인간으로서 화하는데, 인간으로서 그 몸을 벗지 못하고 내 배 속에 들어 있는 생명들이 천차만별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생명들이 살고 있는 것을 한 생명이라고 볼 때, 바로 그 생명들이 한데 합쳤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라 하고 그냥 그저 먹게 되면 먹는 게 아니라 어떡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착취하고 먹고, 이렇게 살려고만 하지 말고 인의롭게 리듬을 타고…. 강제성을 띄어서 훌쩍 뛰어넘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리듬을 타면 스스로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그것을 강제적으로 더 뛰어올라가려고 하고 악을 쓰고 악을 낸단 말입니다. 속이 상해서 펄펄 뛰고. 또는 좋으면 좋다고 그냥 야단이고. 왜 그렇게 중도를 지키지 못하면서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모를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날까지 불교를 믿어 온 그것이 얼마나 허망했던가 생각을 깊이 하실 겁니다. 무엇이 불교인지, 무엇이 인간의 참도리인지, 무엇이 보람 있고 생동력 있는 삶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분간을 못 하고 나라고 하고 내 거라고 하고 내가 했다고 하고, 망하는 거는 네가 망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망했다고 하고, 모두가 이렇게 탓을 하면서 그 습을 놓지 못해서 이 인간의 탈을 벗지 못하면서 항상 좌천되고, 또 승진하는 사람도 있고 좌천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의 한 점의 마음에 의해서, 당신네들을 죽이고 살리는 건 당신네들 마음 한 점에 있다 이거야. 지금 살아나가면서 여러분이 그 고통을 받고 죽을 때가 돼도 그냥 순수하게 먹을 거 다 먹어 가면서 살다가 편안하게 옷을 벗었으면 좋겠는데, 2년이든지 3년이든지 또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펄펄 뛰고 그냥 옷도 못 입고 구덩이가 파지고, 등이 깨지고 피가 흐르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옷을 벗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고통은 자기 고통이지만 나로 인해서 남이 고통을 그렇게 바치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죠. 나는 남을 그렇게 괴롭히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다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만 되는 법이 어딨습니까? 부모가 잘하게 되면 그냥 어느 결에 가는 줄 모르게, 조금 그저 노곤하다가, 먹을 거 다 먹고 사랑할 거 다 하다가 가시면 그 정과 사랑과 깊은 그 인연에 의해서 착도 없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참, 지겨운 착을 또 갖게 하고 그 지겨운 마음을 갖게 해서 죄를 더 짓게 만들고 말입니다. 그게 누가 만들어 주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식들도 그러한 지겨운 마음을 갖게 되고 자식들도 고만 죄를 또 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탓입니까, 모두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내 탓이지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그 반면에 부처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지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도리가, 지금 어류 얘길 했는데 이것이 간단하게 끝날 일은 아니지마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을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이치, 알로 낳는 거, 태로 낳는 거, 입으로 화해서 낳는 거 이것이 천차만별로 돼 있고 그것들이 알을 낳고도 다 잊어버리고 잡아먹히고 이러면서도 그래도 살 궁리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모르면 그렇게 됩니까?

그런 것들도 그런가 하면 또 태로 낳아서 그렇게 잘 이끌어 가는 그런 동물에 가까운 물속의 어류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묘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다 가지고 있듯이. 묘기가 있으면 이게 부족하고, 이게 좀 성능이 좋으면 이게 부족하고. 인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들도, 즉 말하자면 뿔로 대치를 할 수 있는 묘기가 있고 말은 뒷발로다가 그 묘기를 가지고 있고. 모두가 보면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또 박쥐란 놈 좀 보십시오. 인간의 모습처럼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팔과 다리와 발가락이며 머리도 모든 것이, 즉 말하자면 날개에 전부 힘줄처럼, 뼈처럼 다 부착이 돼 가지고 이게 움죽거리면 그냥 나는 거죠. 그것을 산에서 유심히 보곤 했습니다. '야, 신기하구나, 모두가. 자기방어를 다 해서 저렇게 다닐 수 있고 날 수 있고 길 수 있고, 또는 물에서 사는 물의 사자들은 아주 그 속도가 말도 못 하고.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천차만별로 너무나 엄청난 세계라고 봅니다.

또 그런 어류들도 때에 따라서 동물에 가까운 그것이 간이라든가 허파라든가 정맥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다 있단 말입니다, 동맥도 있고. 그러니 얼마나 묘합니까, 이게. 세포 하나하나가, 또는 구절구절이 다 돼 있고 말입니다. 그러니 한만히 남의 생명을 앗아 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간과 뭐가 다릅니까? 그 삶과 아픔과 그 인내와 자비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물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류들도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얼마나 기가 막혀서 하늘을 쳐다보고 웃었던지 모릅니다. 내려다보고 울고, 올려다보고 웃고. 세상에 올려다봐도 그렇고 내려다봐도 그렇고, 세상에 나라고 할 것도 없고 그라고 할 것도 없이 무엇을 탐내며 무엇을 가져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이 파도가 쳐도 한 생각도 없이 빈 배 떠 가듯, 일렁일렁 빈 배가 리듬을 타고 가듯이, 리듬을 타고 그저 돌듯이 이렇게 살아나간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소영영하게 모든 것을 나 아님이 없이 돌보시면서 49년을 길을 인도하셨으니…. 사월 팔일이 다가옵니다마는 사월 팔일만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수없는 나날이지마는 바로 어저께도 지나갔으니, 앞으로의 내일은 오지 않았으니 오늘의 그 거둠 거둠이 길잡이 노릇을 하신 부처님께서는 수없이 길잡이를 했건만 흔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여직까지 지금 현실에 이렇게 살아 계시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삼천 년 전에 돌아가시고 열반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월 팔일이 되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들이 있고, 이 묘법이 있고, 무한의 능력이 있는 이상 부처님은 항상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부처님이 어딨겠습니까? 부처님이 없다면 여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능력으로 마음의 진화력을 가져서 이날까지 모습이 변하면서 나투면서 옮기면서 돌아서 이렇게 인간으로까지 등장을 했고 이 자리에 바로 이렇게 앉아 계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해 볼수록 너무도 기묘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지만 슬프다고 어찌 말을 하겠습니까? 또는 어찌 좋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며 있다고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그대로 하면서 그대로 돌 뿐입니다. 소소영영하게 돌 뿐입니다.

오늘은 이걸로써 끝을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6년 3월 26일 일반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현불 논단 |

감사의 마음, 깨달음의 길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5월은 감사 · 사랑 가득한달
부처님오신날도 5월에 있어
자비 정신의 의미 되새기길

불교의 자비, 연기법서 비롯
자신의존재 · 삶 향한 사랑을
모든 존재로 확장하는 의미

행복한 사회 위한 근본 처방
연기법 체감 · 자비실천 있어

코로나의 질곡 속에서도 오월은 왔다. 독일의 서정시인 H.하이네는 '아름다운 시절 5월에' 라는 시에서 오월을 이렇게 찬미하고 있다.

"온갖 싹이 돋아나는/ 아름다운 시절 오월에/ 내 가슴속에서도/ 사랑은 눈을 떴소/ 온갖 새가 노래하는/ 사랑하는 시절 오월에/ 사랑을 참다못해/ 님께 나는 하소연했소."

5월의 달력을 보니 그야말로 사랑과 감사의 달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세계인의 날도 있다. 그리고 붓다가 이 지구별에 오신 달이다. 오월은 붓다의 자비 정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인 것 같다. 불교의 자비 사상은 연기법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것이다. 붓다가 밝혀낸 연기법은 경이롭고 위대한 사상이다. 초월적 대상에 대한 신앙 없이 연기법이 토대가 되는 종교가 지구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가. 연기법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시방삼세 존재자들의 상호적인 관계에서 나온 선물이다. 따라서 연기에 대한 깨달음은 자신의 존재와 삶이 우주적 연쇄의 존재가 주는 선물임을 깨닫고 다른 존재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비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사랑을 다른 형태인 모든 존재에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월의 행사를 보니 대부분 '가까운' 사람에 대한 감사의 날이다. 어린이, 부모, 부부, 스승 등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이를 강조하는 것을 보니 이것도 그리 쉽지 않은 모양이다. 이런저런 가정사의 비극을 보면 짐작이 가기도 한다. 필자는 '바르고 행복한 사회' 를 만들기 위한 제일 근원적인 처방이 연기법과 자비라고 생각한다. 연기법을 체감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바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자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첫걸음이 모든 존재에 대한 감사이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존재의 '덕분'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의 마음을 가까운 사람뿐 만 아니라 '먼 사람', '모르는 사람'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체에 확대하는 것이다. 〈자비경〉의 일부 내용을 인용해 보자.

눈에 보이는 것이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건,
또 멀리 살건 가까이 살건,
태어났건, 태어나려고하고 있건,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전 우주를, 그 높은 곳, 그 깊은 곳, 그 넓은 곳
끝까지 모두를 감싸는 사랑의 마음을 키워라.
미움도 적의도 넘어선
잔잔한 사랑을.

필자는 이 〈자비경〉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자비의 위대함이 장엄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현대 윤리학 이론에 '거시윤리학' 이라는 이론이 있다. 최근에 등장한 거시윤리학은 종래의 윤리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개인- 인간중심, 현재 중심의 미시적 윤리하고 비판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겪고 있는 도덕적, 생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비경〉에는 거시 윤리학이 주장하는 이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 그 지혜가 참으로 드높다 하겠다.

오월에 붓다가 이 지구촌에 오셨다. 자비의 광명으로 지구별을 빛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우리 모두 모든 존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자. 이것이 자비 수행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웨삭데이는 '최고의 날'

'부처님오신날' 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달력을 보니 앞으로 3주 가량 남았습니다. 웨삭을 기념하는 날, 즉 '부처님오신날' 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중국, 한국, 대만, 홍콩, 베트남과 같은 동아시아에서는 음력으로 4월 8일입니다.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의 테라와다 불교 국가의 경우는 음력(인도 달력)으로 2월 보름입니다. 또 양력 5월 보름을 '최고의 날' 이라는 뜻으로 '웨삭데이(Vesak Day)' 라고 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탄생과 깨달음, 열반을 하나로 묶어 기념합니다. 그리고 불자들의 설날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웨삭데이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후까지 불교 축제 기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웨삭 날과 다음날까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것에서, 스리랑카 사람들이 얼마나 웨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스리랑카의 정부 기관과 학교, 집 등 모든 곳에서 법회가 열립니다. 뿐만 아니라 연꽃, 별, 코끼리, 사각, 팔각의 다양하게 장식한 등을 밝힙니다. 또한 부처님의 본생경을 바탕으로 하는 불교 회화나 전구로 등을 장식하여 '아치형의 문(torana)' 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날 저녁에는 많은 사찰에서 일요일 법회 소속 학생들이 빠알리어와 싱할라어로 부르는 바끄띠 기타(찬불가, Bhaktigīta: 삼보께 예경하는 노래)를 곳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마하위하라 사원도 '웨삭' 이라는 뜻 깊은 날을 맞아 여러 행사를 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스리랑카 전통의 '팔각등' 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리랑카 전통의 '팔각등' 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각형 4개는 사성제를, 삼각형 8개는 팔정도를 의미합니다.

마하위하라 사원은 5월 26일 웨삭데이를 맞아 스리랑카 전통 연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자들이 각자의 집에서 연등을 정성스레 만들고, 사원에 달아 불을 밝혀 웨삭데이와 세계평화를 기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2일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바끄띠 기타(찬불가)를 부르고, 23일 오후 2시에는 법회를 올릴 예정입니다.

이날 마하위하라에서는 보리수 친견법회가 열립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자 네란짜나 강둑 위의 보리수 아래에서 안좌 명상에 들어가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는 7주간 삼매로 들어가시고 보리수 밑에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보리수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보리수에서 자라난 보리수를 한국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날 보리수에 물을 주고 친견법회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고타마 싯다르타 '탄생' 불기 2745년이며 '성불' 불기 2710년이고 열반하신지 2665년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살아 있는 존재들이 욕망과 혐오, 그리고 어리석음에 기인한 수많은 열기와 열병으로 끝없이 타들어 가고 있다고 보고,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훌륭한 가르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기 위해, 존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한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지의 길' 이라는 뜻으로 웨삭데이(부처님오신날)에 나라마다 다소 의미상의 차이점은 있지만 다들 그날이 되면 삼라만상에 특별한 의미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社 說

자비나눔은 불자의 의무

지난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던 한 해였다. 코로나 창궐부터 마스크 대란, 각종 업장 폐쇄와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온 국민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불교계도 마찬가지였다. 사찰은 산문을 닫아야 했고, 법회 등 각종 행사는 중단됐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불자들의 자비행이 더욱 확산된 것으로 나타나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아름다운동행 2020연차보고서 결산 결과 구호분야와 현물기부분야의 모연액이 2019년 대비 2~3배씩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와 생필품 기부부터 저소득층 지원까지 마음을 내는 불자들이 많았다는 증거다.

비록 사찰 문은 닫았고, 코로나로 봉사활동은 힘들었지만 마음 만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사회에 희망을 주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 이 같은 성원 하에 아름다운동행은 코로나 극복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미얀마 돕기 등 해외 구호까지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불교는 근현대사에서 기독교에 비해 사회기여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산중 불교로 수행과 정신문화 창달에는 버팀목 역할을 했지만 사회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종교의 역할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불교 대표 공익재단에 재난 때마다 많은 성금이 답지하고, 매년 기부액이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앞으로 특정 사안 외에도 사찰 신도회비를 납부하듯 정기후원 또한 활성화 된다면 불교가 이 땅에서 보다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외받는 이웃은 늘고 있다. 부처님 오신날을 앞둔 지금, 자비실천에 마음을 모으자.

'비구니 수행결사'에 담긴 의미

전국비구니회가 비구니승가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수행결사를 입재했다. 단순한 수행결사가 아니다.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실천행이다. 동시에 전국 사찰, 각 분야에서 수행과 포교, 기도, 사찰 운영에 매진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이 제각기 머문 그 자리에서 출가 본연의 근본정신인 수행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다.

전국비구니회가 비구니 수행결사체를 발족한 것은 결코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이 미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상당수 비구니 스님들이 제각기 처한 상황에서 수행과 포교라는 수행자 본연의 모습을 이어가며 존경받고 있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결사는 비구니 스님들이 승가공동체로서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복안이다. 비구니 수행결사의 근본도량은 전국비구니회 법룡사로 정해졌다. 비구니 스님이라면 누구나 방문해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 소임에 메여 안거에 들지 못한 스님은 매월 1회 정진을 통해 함께 수행하고 안거 이후 수행을 이어가고 싶은 스님은 산철에도 이곳에서 정진을 이어갈 수 있다. 법룡사에서의 정진은 일상으로 이어진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청규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결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결사가 이 시대 불교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청정 승가공동체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종교의 위기가 거론되는 시대, 새롭게 시작된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결사가 한국불교 미래에 어떤 화두를 던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